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8호 HYUNBULNEWS.COM 2026년 7월 29일(음력 6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살아있는 유산' 한국불교 세계에 알리다 전 세계 196개국 3000여 명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모이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7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우리나라가 세계유산협약 가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국제회의는 29일까지 진행되며 한국불교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됐다. 불교계는 개최국 공식 전시관인 '세계유산 대한민국관'에서 산사와 사찰음식, 영산재와 수륙재 등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을 선보이며 K-불교의 매력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관련기사 5면〉

글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종회 '산회'…공감과 미래 · 집행부 갈등

7월 21~23일, 회기 기간 성원 미달
"호법부 협박"VS"업무 수행" 충돌
무기한 단식 · 총무원장 사퇴 요구
경우 스님, 불교광장 회장 사퇴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정법회와 선우회 소속 종회의원들로 구성된 연대체 '공감과 미래'의 요구로 소집된 조계종 중앙종회 제239회 임시회가 끝내 성원 부족으로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공감과 미래와 총무원 집행부는 "종회 개원 방해·호법부 협박", "절차·원칙 따른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충돌했고 갈등은 무기한 단식과 총무원장 사퇴 요구로까지 번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7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종책모임 불교광장의 집단 불참으로 재적의원 81명 가운데 18명만 참석해 개원하지 못했다.

이에 공감과 미래는 총무원 집행부가 중앙종회 개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종회가 개원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원들과 잇따라 공양 모임을 갖고 종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종단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중앙종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종단의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스님도 "오늘부터 중앙종회가 개원될 때까지 총무원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25일까지도 종회가 개원되지 않는다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회 둘째 날인 22일에도 종회의원 15명만 참석해 성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날 공감과 미래는 호법부 관계자가 단식 중인 법원 스님을 찾아와 압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스님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께 휴식을 취하던 중 호법부 관계자가 찾아와 호법부 동행을 요청했고, 익명의 투서를 보여주며 국제선센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금다발이 담긴 금고 사진 등을 제시하며 "선거를 앞두고 괜찮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사실상의 협박이자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은 종무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무원장이 져야 한다"며 총무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총무원 호법부는 즉각 반박했다. 호법부는 입장문을 통해 "비위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기본 업무"라며 "법원 스님에 대한 확인 역시 정치적 의도나 압박이 아닌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고 밝혔다.

임시회 셋째 날인 23일에도 종회의원 12명만 참석해 성원을 채우지 못했다. 주경 스님은 공감과 미래 측 동의를 받아 5일 회기 중 3일간의 유회를 끝으로 임시회 산회를 선포했다.

주경 스님은 산회에 앞서 "불교광장과 정법회·선우회가 소통해 '법계법' 종헌불일치 등의 현안을 18대 종회 회기 내에 매듭짓고 다음 종회로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원을 기다리는 동안 공감과 미래 소속 종회의원들은 전날 단식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재가종무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공식 참회했다.

임시회 산회 직후 공감과 미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무원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사부대중 앞에 즉각 소명하고 밀실 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총무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종도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종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총무원장이 책임 있는 결단을 거부한다면 강력한 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현재 공감과 미래 소속 종회의원들은 총무원 청사 1층에서 단식을 이어가며 총무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회장 경우 스님은 7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경우 스님은 "불교광장의 의사결정이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보다 일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종단의 건강한 발전과 화합보다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느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장으로서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9월 3일에 열린다

중앙선관위, 7월 22일 공고 결의
후보자 등록 기간 8월 11~13일
겸직금지 8월 10일까지 사직해야
선거 감시 공명선거위원단 구성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치러진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7월 22일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433차 회의를 열고 선거 시행과 제반 사항을 논의한 뒤 선거일을 9월 3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 7월 28일자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은 8월 11일부터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총무원장 후보자는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종사급 이상 비구 스님이어야 한다. 또 △중앙종회의장·호계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3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3년 이상, 위원 6년 이상 역임 등 경력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한다.

특히 후보자는 선거법 제31조에 따라 말사 주지를 제외한 겸직금지 대상 종무직을 맡고 있을 경우 8월 1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종책과 정견, 공약, 경력 등을 담은 32면 이내의 종책자료집 1종을 제작할 수 있다. 종책자료집은 전체 선거권자의 2배수인 642부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배부 전까지 제작 비용과 배부 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후보자 신문광고는 교계 신문에 후보자별로 총 6회 게재할 수 있다. 선거법 제4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 기간 중 각 후보자가 참여하는 종책토론회도 개최할 수 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중앙선관위는 8월 20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총무원장 후보를 선출할 선거인단은 총 321명으로 구성된다. 직할 교구를 비롯한 24개 교구본사는 교구종회를 열어 교구본사 주지를 포함한 1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24개 교구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 등 총 321명이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인은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 승려다.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 기간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선거인단 자격심사는 8월 28일 진행된다.

교구종회는 본사 주지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 주지, 직선직 교구종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교구종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방법과 절차는 종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교구종회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방식과 절차를 의결해 진행한다.

선출 방식으로 여러 안이 제안될 경우, 가장 늦게 성안된 안부터 차례로 찬성 여부를 확인한다. 가장 많은 찬성을 얻은 선출 방식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다시 의결해 반드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공명선거위원단도 구성·운영한다. 공명선거위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가운데 교구별 1인 이상을 포함해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단은 위촉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종무기관과 종법령에 따라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종무원(말사 주지 제외),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내영 기자

관심이 신행으로 – ⑥ 기획실장 · 포교부장 인터뷰 10·11면

여름휴가 관계로 다음 주는 휴간합니다.

2026 청소년 마음등불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빛나는 나를 위해, 내 삶의 주인공인 나를 위해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 12월

목 적 청소년들에게 명상, 심리, 상담,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청소년기의 몸과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소통과 공감, 배려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조화롭고 균형있는 관계를 가꿔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대 상 전국 중 · 고등학생 및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방법 사찰 · 단체 연락처로 직접 참가 신청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주 관 (사)동련 · 미타선원(행복선명상센터) · 정토사 · 봉불사 · 이제사 · 봉인사 · (사)자비명상 · 마인드힐링명상상담센터 ·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 한마음과학원 · 자비선사 · 보현정사 · 관음선원 · 통담선원 · 마음챙김연구소 · 용흥사 · (사)싱잉볼치유의소리 · 한국불교상담학회(18곳 무순)

지 원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 진행일정

	프로그램명	일정	지역	사찰 · 단체	연락처
1	나를 찾는 선	5.10(일)	부산	(사)동련	010-5332-0853
		7.16(목)	밀양		
		7.25(토)	포항		
		7.25-7.26(토일)	부산		
2		8.10(월)	부산	미타선원(행복선명상센터)	010-3852-7118
3		8.9(일)	울산	정토사	010-6337-9211
4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	5.8-5.9(금토)	정읍	마인드힐링명상상담센터	010-5555-7103
5		7.16(목)	무안	봉불사	061-454-2303
		7.23(목)			
6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7.25(토)	홍성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010-2653-9317
		9.4(금)	포천		
		9.8(화)	서울		
7	청소년을 위한 상담이 있는 명상	8.3(월)	남양주	봉인사	010-2570-5585
8	꽃을 피우는 나무	7.22-23(수목)	음성	한마음과학원	031-470-3200
9	꿈사리 마음등불 캠프	8.22(토)	공주	이제사	010-2498-5038
10	EGG 깨뜨림, 잠자는 너의 매력을 깨워라!	7.18(토)	대전	(사)자비명상	010-4328-3314
		7.25(토)	서울		010-4799-2207
11	청소년 행복찾기 차명상 '자비다선'	7.19(일)	부산	자비선사	010-9437-3911
		8.29(토)	성주		
12		8.2(일)	세종	보현정사	010-8777-4191
		8.20(목)			
		8.21(금)			
13	존귀한 나와 우리를 위한 행복한 마음 여행	4.12(일)	서울	관음선원	010-6799-4845
		8.23(일)			
14	신통방통 육방통	8.5-8.6(수목)	서울	통담선원	010-7202-5064
		8.22-8.23(토일)			
15	불교 에니어그램 '체·인·지(體認智)로 Change'	9.6(일)	서울	마음챙김연구소	010-8314-0676
16		7.26(일)	담양	용흥사	010-5315-9947
17	싱잉볼 활용 청소년 인성계발 프로그램	8.15(토)	부산	(사)싱잉볼치유의소리	010-7642-0348
18	청소년 클린 마인드 : 탐·진·치 디톡스 프로젝트 !	7.25(토)	부산	한국불교상담학회	010-4158-5011

※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는 문명 과정…선하게 활용돼야”

7월 20일 종무원 ‘AI 특강’ 진행
진우 스님·하정우 전 비서관 대담
하정우, 특강서 불교 AI 활용 제안
“양질 불교데이터 학습 필요” 강조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1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초청 강연에 앞서 대담하고 있다. 사진=정승채 디지털미디어국 차장

“인공지능(AI)은 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AI 역시 흘러가는 하나의 문명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대담에서 AI 기술에 집착하거나 현혹되기보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종단이 양질의 불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AI에 학습시키고, 이를 포교와 전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화두도 던졌다.

진우 스님은 7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초청 조계종 종무원 대중 강연’에 앞서 하 전 비서관과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에서 진우 스님은 AI를 현대 과학기술의 결과물이자 불교의 마음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규정했다.

진우 스님은 눈·귀·코·혀·몸·마음의 ‘육근’과 색·성·향·미·촉·법의 ‘육경’, 이를 인식하는 육식이 합쳐져 18계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고 “내가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게 하는 ‘나’라는 집착의식이 말나식이며, 그 근본에는 지나온 모든 시간이 축적된 아뢰야식이 있다. AI 역시 이러한 인식과 정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를 회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 AI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문명 과정”이라며 “현상적인 것은 무엇이든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 기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모든 현상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도 짚었다. 즐거움과 괴로움, 태어남과 죽음,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이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듯 AI 역시 편리함과 부작용을 동시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을 인용한 진우 스님은 “AI든 무엇이든 선(善)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며 “AI가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고 이용하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무원들에게도 AI시대에 대응해 나갈 화두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엄청난 불교 정보를 잘 입력해 학습시켜야 한다. 좋은 것을 많이 학습시켜야 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AI를 통해 불교의 장점을 알고, 이를 통해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종단과 교역직·일반직 종무원들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담 이후 ‘AI, 한국불교 미래를 얘기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하 전 비서관은 한국불교가 축적해 온 경전과 법문, 수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 불교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불교 전문 AI’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하 전 비서관은 “현재의 범용 생성형 AI는 불교에 대해 잘 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질문하면 환각과 잘못된 답변이 빈번하다. 불교를 제대로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가 보유한 아날로그 자료를 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음돌봄에 종교계 합심”

유흥식 추기경, 진우 스님 예방
‘종교 사회적 역할’ 주제 대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유흥식 추기경과 마음돌봄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갈등이 깊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마음평안을 위한 종교계의 협력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7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의 예방을 받고 마음돌봄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진우 스님은 “종교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인 만큼 사건·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종단 지도부들이 함께 책임감을 갖고 사회 문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을 돌보고 사회를 건강하게 가꾸는 데 종교계가 합심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종교가 국민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흥식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레오 교황을 보좌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왔다고 소개하며 “한국에 오면서 종교계 여러 어른들을 만나 공동의 가치를 나눌 수 있었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돌보고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 종교의 중요 역할이라는 데 공감했다. 유 추기경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경쟁과 대립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음 상태에서는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현희 기자

종단협, 한중일대회 등 하반기 사업 확정

7월 20일 2차 이사회 개최
성지순례 장소 라오스 결의



한국불교종단협회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가 하반기 주요 사업 일정과 세부 사항 등을 확정했다.

종단협은 7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2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정원 35명 중 참석 32명, 위임 3명으로 성원됐다.

이날 이사회에서 종단협은 오는 10월 20~22일 경주 불국사에서 열리는 제26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연설자 배정과 예산안 5억 6850만원을 확정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연기됐던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는 11월 24~28일 4박 5일 간 라오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또 이사 종단인 조동종의 총무원장이 덕우 스님에서 지원 스님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정된 ‘임원 변경의 건’은 원안통과 됐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회비를 미납한 미타종은 준회원으로 강등 후 올해 12월 이사회까지 회비를 납부할 경우 정회원으로 복귀하되 미이행할 경우 제명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임이사 명안 스님(여래종 총무원장)의 발의로 상정된 사무처장 해임 요청에 대해 회장단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제기된 문제를 참작해 대중 참회를 권고했다. 이에 사무처장 탄웅 스님은 종단협 이사 스님들에게 삼배를 올리고 참회했다.

내년 2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무총장 추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추천은 9~10월경 입후보자 공지와 접수가 이뤄지며 정관에 따라 11~12월에 복수 인사가 추천돼 12월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앞서 회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동아시아 불교계의 황금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종단 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 위촉

7월 23일, 남철우 회장 등 4명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올바른 언론문화 정립과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제정한 불교언론문화상의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언론문화상 위촉직 운영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미디어홍보실장 덕안 스님이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중앙종회 문화분과위원장 정운 스님이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운영위원으로는 남철우 전국언론사불자연합회장,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 김경달 전 네이버 동영상서비스실장, 임성희 프리랜서 작가가 위촉됐다.

진우 스님은 “과거에는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방송과 미디어, 언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시대”라며 “불교의 목적은 결국 스스로를 완벽한 평안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언론이 그 역할을 맡아 모두가 평안하고 부처가 될 수 있게 전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은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후보작을 접수하며, 시상식은 11월 열릴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500 천진불 수계로 밝힌 불교 미래

부산 · 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 성료

조계종 주최, 범어사·통도사 주관
7월 19일 BPEX 컨퍼런스홀서
세대 아우르는 전법 원력 다져
진우 스님 "포교, 불교의 생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7월 19일 열린 '부산 · 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천진불 대표에게 전법의 상징인 서원건을 직접 걸어주며 격려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야단법석이 부산에서 펼쳐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컨퍼런스홀에서 '부산·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제14교구본사 범어사와 제15교구본사 통도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불교의 역량을 결집해 '미래세대 포교'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목종 스님, 부산 화엄회장 묘선 스님 등 스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전재수 부산시장, 이헌승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사)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조계종부산연합회,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조계종 포교사단, (사)동련,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대회는 식전 체험마당을 시작으로 수계식과 결집대회로 진행됐다. 1부 '어린이·청소년 수계법회'에서는 영남지역 어린이 청소년 500여 명이 우리말로 쉽게 풀어낸 오계를 수지하며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인연을 맺었다. 2부 본행사는 선명상 등 포교역량 결집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포교는 불교의 생명이요, 전법은 우리 종단이 존재하는 까닭"이라며 "오늘 수계식을 통해 한 어린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운 그 작은 서원이 곧 한국불교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는 어린이지도자연합회 창립 40주년, 파라미타 창립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른 인성과 따뜻한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과 선명상"이라고 짚었다.

현덕 스님은 "1400년 전법과 전계의 도량인 통도사 대중에게도 오늘 500여 명의 천진불은 한국불교를 밝힐 가장 소중한 등불"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신적 '아노미' 상태에 놓인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 종단과 교구의 가장 큰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오 스님은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의 파고는 우리에게 개별 사찰의 경계를 넘어 사부대중 전체가 하나의 원력으로 뭉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 기성세대가 불교라는 대도량 안에서 하나로 연결돼 '세계여일화(世界如一花)'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환영사에 나선 수불 스님은 "포교는 수행을 통해 변화된 삶, 즉 한 사람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사부대중 모두가 살아있는 포교의 주인공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세대를 초월해 사부대중이 하나 된 '대중실천선언'과 '서원건 착의'였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신도 8명이 단상에 올라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포교 원력을 담은 실천선언을 낭독했다. 이어 중장년 대표가 청년에게, 청년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전법의 상징인 서원건을 차례로 걸어주는 착의 의식이 진행됐다. 이 퍼포먼스는 부처님의 굳건한 법맥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상징하며, 사부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진우 스님을 비롯한 단상의 스님들도 어린이 대표들에게 손수 서원건을 걸어주며 격려했다.

강진 피해 베네수엘라에 '자비 손길'

수덕사 · 대불총, 동행에 지원금
복지재단 · 더프라미스, 현지 파견


7월 20일 열린 수덕사 기금 전달식.


7월 23일 열린 대구불교총연합회 기금 전달식.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찰과 단체들이 피해 복구 지원금을 전달한 데 이어, 구호단체들은 지원팀을 파견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7월 20일, 대구불교총연합회(이사장 선광 스님·동화사 주지)는 23일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기금 각 2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베네수엘라 이재민을 위해 교구본사 중 처음으로 동참해줘 고맙다"며 "수덕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준 만큼 이를 계기로 많은 곳에서 자비나눔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이사장 선광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동화사 총무국장 벽와 스님은 "더 일찍 준비해 더 많은 기부금을 전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진 피해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준 모습에서 불교의 본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고맙다"고 화답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과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7월 21일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와 구호팀을 베네수엘라 현지에 파견했다. 이들은 최대 피해 지역인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주 이재민 캠프에 '아동친화쉼터'를 운영하며 지진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의 정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운 · 이현희 기자

사노위 연대 결실 '산재 사망' 공식 사과

추모제 · 1인 기도 등 이어와
7월 17일, 유족 합의 결실



7월 1일 철도 공사 현장에서 숨진 미얀마 노동자 고(故) 아웅민우 씨에 대해 SK에코플랜트가 공식 사과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사고 직후부터 추모와 연대 활동을 이어오며 원청인 SK에코플랜트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해왔다.

앞서 사노위는 7월 6일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추모 기도회를 봉행하고 원청의 공식 사과와 분향소 설치를 요구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은 "유족 입국 절차를 도와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사노위는 사 측에 면담 요청서도 전달했다.

이후 사노위원 스님들은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매일 1인 기도를 이어가며 유가족 입국과 존엄한 장례 보장,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연대 속에 고인의 부인 친마이마이 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7월 16일에는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이주노동자평등연대·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도 함께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 발언에서 "원청과 하청은 물론 정부까지 진상 규명과 배·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연대는 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됐다. 원청인 SK에코플랜트와 하청업체 LT삼보는 7월 17일 유가족과 최종 합의하고 공식 사과와 배·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약속했다. 양측 대표이사도 분향소를 찾아 사과하고,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양한웅 사노위 집행위원장은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배·보상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노위와 시민사회가 연대한 결과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 이번 사례가 앞으로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사노위, '태움' 희생 간호사 49재

7월 20일, 경기 광주 병원 앞
해륜 스님 "공식 사과" 촉구



지난 6월 2일 직장 내 괴롭힘('태움')으로 숨진 고(故) 강수빈 간호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재가 거행됐다. 불교계와 시민사회는 병원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같은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7월 20일 고인이 근무했던 경기 광주시 모 병원 앞에서 강수빈 씨의 49재를 봉행했다.〈사진〉

강 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노동 당국은 일부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정 조치는 병원에 맡겨졌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훈계 수준에 그쳤다. 현재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병원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병원 측의 공식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사노위는 이날 추모 기도를 통해 병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비롯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노위원 해륜 스님은 "고 강수빈 간호사님이 직장 괴롭힘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시기를 부처님께 발원드린다"며 애도했다. 또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정부에 직장 괴롭힘의 뿌리를 뽑는 데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 광주=이현희 기자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2026학년도 2학기(9월) 신입생 모집

모집 과정 불교전법사 / 명상지도사 / 심리상담사
학습 과목 공통과목 불교사, 불교학개론
전공과목 사회생활과 법,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마음챙김 명상과 뇌과학, 불교심리학
상담심리학, 정신건강과참선명상
수업 시간 화 · 수 13:00~17:00 / 목 • 금 13:00~18:00
수강료 400,000원
학점은행제 불교심리학(불교학전공 / 3학점) • 정신건강과참선명상(교양 / 3학점)

대원아카데미

디지털대원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합니다
온라인 수강 가능
수강료 300,000원

디지털대원아카데미

특전 및 혜택
• 성적 최우수 장학금 : 수강료 100% 지급
• 성적 우수 장학금 : 수강료 50% 지급
• 불교계 종사자 : 수강료 50% 할인
• 가족 동반 등록 시 : 1인 수강료 50% 할인
• 수료자 재등록 시 : 수강료 50% 할인
• 2개 과정 이상 등록 시 : 1개 과정 50% 할인
• 과정 수강생 동반 1인 1과목 무료 수강
• 민간자격 취득 응시자격 부여
• 개강 첫 주 무료 공개 강의
• 개별 과목 수강 가능

접수 / 문의
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igitaldaewon.org
접수 마감 2026년 9월 1일(화)까지
문의 02)707-1072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BBS 불교방송) 3 · 11층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kbpf.org

진각종, 울릉도서 '평화' 노래하다

7월 22일, '독도아리랑 콘서트'
주민 · 관광객 1500명 축제 즐겨
울릉도 대표 문화축제 자리매김
21일 '진호국가 무진서원불사'도

울릉도=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각종은 7월 22일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제23회 회당문화축제 메인 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를 개최했다.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에서 국민 화합과 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예술 축제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7월 22일 울릉도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제23회 회당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독도아리랑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악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함께 즐기며 한여름 울릉도의 밤을 즐겼다.

올해 공연은 '아름다운 이곳은 우리 땅, 섬마을 울릉도', '울릉 비나리', '울릉 그리고 아리랑', '어울림' 등 네 가지 주제로 꾸며졌다. 울릉도아리랑보존회와 지역 어린이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예인집단 아재의 전통 줄타기, 국악밴드 거꾸로프로젝트의 무대, 청년 자원봉사단의 독도사랑 퍼포먼스, 밴드 노브레인의 공연이 이어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를 완성했다.

특히 올해는 울릉문학회와 함께 추진한 '울릉애가 프로젝트 2'가 처음 공개됐다. 울릉도 문학인들의 작품에 곡을 붙인 신민요 3곡을 처음 선보였으며, 이들 작품은 오는 8월 음원으로 제작돼 울릉문화원에 헌정될 예정이다. 지역의 자연과 삶을 담은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존하는 회당문화축제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았다.

축제의 마지막은 청년 자원봉사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새롭게 구성한 '독도는 우리 땅' 퍼포먼스와 불꽃놀이가 장식하며 울릉도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 사동에서 태어난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을 기리고 독도아리랑을 통해 국민 화합과 나라의 안녕을 발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로 23회를 맞으며 울릉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회당문화축제가 23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울릉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년은 창종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더욱 알차고 신바람 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찾아오겠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 모두의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도영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호국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와 자연, 사람들의 이야기가 축제를 통해 국민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회당문화축제가 지역을 대표하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불교계 대표 축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울릉도와 성북구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역 간 문화교류 확대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 구청장은 "성북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역사문화도시이자 8개 대학이 있는 청년의 도시이며, 진각종 총본산이 자리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회당 대종사가 태어난 울릉도와 총본산이 있는 성북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울릉군과 서울 성북구는 문화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와 진각종 총본산이 있는 성북구가 문화축제를 매개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 간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콘서트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회당의 발걸음을 따라'를 주제로 걷기명상 순례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총지심인당에서 선원심인당까지 걸으며 회당 대종사의 수행 정신을 되새기고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독도 특별방문도 예정됐지만 높은 파도로 여객선 접안이 어려워 입도는 아쉽게 무산됐다.

앞서 진각종은 7월 21일 울릉도 금강원 야외 특별행사장에서 '금강원 진호국가 무진서원불사'를 봉행하고 2027년 열릴 창종 80주년 기념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세계평화, 국태민안을 발원했다.

능원 정사는 "금강원 진호국가 무진서원불사는 진각종 고유의 의례를 축제로 승화시킨 장엄한 법회이자 울릉도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평화를 서원하는 대작불사"라며 "묵호항을 떠나며 '진각여민락(眞覺與民樂) 불법위세평(佛法爲世平)'을 되새겼다. 누구나 참된 깨달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불법이 흥왕해 세상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금강원에서 다시 세운 발심과 서원은 한량없는 공덕으로 회향돼 서울 성북구와 울릉도의 상생 교류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인연이 될 것"이라며 "회당문화축제가 지역 종단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지심인당 주교 경일 정사는 회당 대종사가 열 살 때 지은 한시를 봉독하며 종조의 원력을 기렸으며, 종의회 의장 재당 정사는 종조법어를 봉독하며 금강법계와 유가삼밀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지심 탑주심인당 보살은 울릉군에 10kg 쌀 300포를 기증해 대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식후에는 교성곡 '회당' 가운데 '눈을 뜨라'를 국악밴드 거꾸로 프로젝트와 경기민요 박정미 소리꾼이 협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봉사단원들이 준비한 '독도사랑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행사는 원만히 회향됐다.

금강원 금강정 복원 진리 샘물길 열려

진각종, 종조 탄생지 헌공불사
'금강수' 취수 위해 조성돼

"금강정의 금강수가 말법시대 중생들의 무명과 아집을 치유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법수로 전승되길 서원합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이 종조 회당 대종사 출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에 오랜 샘물길을 복원해 금강정을 조성하고 심인 진리가 세상이 널리 퍼지길 발원했다.〈사진〉

금강정은 진각종 의례에서 사용되는 '금강수'를 취수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금강원은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이자 무진 서원이 깃든 심인진리의 근본도량으로, 이번 불사는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금강원을 순례하는 진각행자와 관광객 모두에게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감로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금강정 조성은 올해(진기 80년) 4월 29일 제417회 원의회에서 추진이 결정됐으며 5월 19일 제451회 임시종의회에서 확정 의결했다. 6월 8일 착공해 약 20일의 공사 기간을 거쳐 27일 완공됐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오랜 염원이었던 금강정 조성이 마무리된 데 대해 기쁨을 표하며 "앞으로 금강원 금강정의 금강수로 관정하는 모든 진각행자들이 언제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천만사를 당적할 수 있고 단청을 할 수 있을 만큼 평온한 마음으로 날마다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헌공불사 후 참석자들은 금강수를 한 모금씩 나누며 삼인진리의 법맥과 금강원의 역사 물길이 천년토록 이어지기를 함께 발원했다. 울릉도=임은호 기자



기자칼럼

누가 아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조계종이 오는 9월 3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른다.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스님은 없다. 8월 11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비로소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기대보다 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지 우려하는 마음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정작 종단의 미래를 놓고 경쟁해야 할 종책 논의는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불교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호감이 높아진 지금, 어렵게 쌓아 올린 긍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총무원장은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이자 한국불교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자다. 종단 운영 능력은 물론 사회와 소통하고 국민에게 불교의 가치를 전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종단 구성원을 하나로 아우르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수행력과 행정력, 포교 역량, 대외 협력 능력과 포용력을 두루 갖춘 지도자가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 한국불교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출가자 급감과 승가의 지속가능성, 신도 감소에 따른 포교 혁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종단의 재정 자립, 전통문화의 계승과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다.

후보들은 자신의 종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종단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떤 비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 것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선거인단 역시 계파나 인맥, 풍문이 아니라 후보가 제시하는 종책과 이를 실현할 역량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만큼은 사람보다 종책이, 비방보다 비전이, 갈등보다 화합이 우선되길 기대한다.

그것이 종단의 품격을 높이고, 어렵게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길이다.



김내영 편집국 차장

생명나눔·중신회, 장기기증 확산 '맞손'

7월 22일, 업무협약 체결
생명나눔 캠페인 등 추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 이하 생명나눔)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선다.

생명나눔과 중앙신도회는 7월 22일 생명나눔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한국불교 발전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불교 발전과 생명나눔 문화의 범국민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불교계의 생명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중앙신도회 회원 대상 장기 기증 캠페인 추진 및 치료비 지원 △불교적 자비 사상에 기반한 연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과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며 "나 또한 간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환자의 마음을 알기에, 종교·인종과 관계없이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신회가 여러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생명나눔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표했다.

이에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전국 불자들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신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살림 활동에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생명나눔 부이사장 선일 스님·이사 법륜 스님을 비롯한 생명나눔 이사들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중앙신도회에서는 정원주 회장·김학규 수석부회장·임원진 등이 함께했다. 박지운 기자

명상아카데미 가을 학기 개강

명상지도자協, 1·2급 과정
1박2일 캠프 · 월례명상 진행

한국명상지도자협회(공동대표 마가 스님·정혜 스님·김열권·안희영, 이하 협회)가 명상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명상아카데미 가을 학기'를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2급 과정은 9월 2일, 1급 과정은 9월 5일부터 온라인(Zoom)으로 10주간 진행된다. 금강 스님의 '선명상과 화두수행' 강의를 시작으로 협회 소속 명상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검증된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지도할 예정이다.

2급 과정은 9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협회에 소속된 스님들과 단체의 명상법을 배울 수 있으며, 명상전문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1급 과정에서는 더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 중심 강의가 진행된다. 명상전문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강사 구성은 2급 과정 종강 시 강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두 과정 모두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전체 강의를 100% 수강해야 한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 불참한 경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녹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단 녹화 강의 수강 시에는 간단한 소감문을 과제로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1·2급 과정 중 8·10월에 진행되는 1박 2일 오프라인 수련캠프에 1회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참가비는 35만원. 02-953-5307 박지운 기자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국불교, 세계와 만나다

첫 국제회의…3000명 참가
'부산 선언'으로 '협력' 새 화두
반가상 · 승무로 '사유' 전해
한국관, 불교 유산 가치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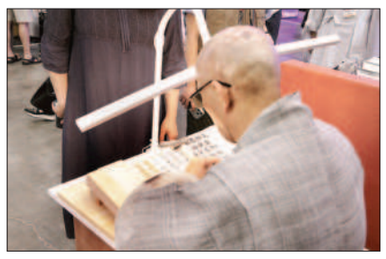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기간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국 공식 전시관인 '세계유산 대한민국관'이 운영됐다. 사진은 서울 진관사 부스에서 어린이들이 스님의 지도로 서울시 무형유산 '전통 지화(紙花)' 만들기를 하는 모습.



7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부산 선언'이 채택됐다.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해인사는 '한국관' 부스에서 고려시대 국난 극복의 염원이 담긴 팔만대장경 판각 시연과 인경 체험을 진행했다.





글로벌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7월 22일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다.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통도사를 직접 찾아 한국불교의 '살아있는 수행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 소속 펠로우 및 인턴 동문은 7월 22일 '2026 WHIPIC 동문 워크숍' 답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도사와 경내 암자인 서운암을 순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답사는 세계유산 제도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유산 현장에서의 공동체 참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답사단을 맞이한 통도사 연수과장 수진 스님은 통도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보편적 가치를 설명했다. 수진 스님은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佛寶) 사찰"이라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복합 수행 공간을 현재까지도 온전히 보존·유지하고 있는 뛰어난 도량"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일주문, 천왕문, 중로전을 거쳐 대웅전과 금강계단에 이르기까지 가람을 순례하며 한국불교 특유의 아름다움을 체험했다.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칼튼대 교수(ICOMOS 캐나다 위원장)는 "다른 동아시아 건축과 확연히 구별되는 한국 건축만의 고유한 매력과 결합 방식을 통도사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보존 상태와 현장 전시 방식에 감명을 표했다.

이어 서운암으로 이동한 답사단은 16만 도자대장경과 개방형 수장고에 전시된 옻칠·도자 예술 작품을 관람하며 한국불교의 뛰어난 기록 문화와 예술성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냈다.

이 밖에도 26일 사찰음식 맛보기와 조계종 미래본부 주관 선명상 체험, 27일 범어사 사찰음식 만찬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줄을 이으며 세계유산 전문가들에게 잊지 못할 K-불교의 매력을 선사했다.

〈차주 상보〉

'살아있는 유산'으로 주목

회의 기간 산사와 사찰음식, 영산재와 수륙재 등 한국불교의 유·무형유산은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 그 가치를 주목받았다.

'하늘을 품은 지붕, 세대를 잇는 울림'을 주제로 열린 개막식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거대한 지붕 아래 품고 국제적 협력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특히 전 지구적 기후·생태 위기 앞에 인류의 성찰을 촉구한 '사유(思惟)의 문'은 단연 압권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무대에 신비롭게 떠오른 가운데, 깊은 구음(口音) 위로 불교 전통 무용인 승무(僧舞)가 어우러졌다. 기후위기와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구도자의 성찰을 몸짓으로 표현해 한국 불교문화의 깊은 예술성과 정신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산사,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지녀"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유산 보존 노력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부강한 나라보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를 꿈꾸셨던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는 시대일수록 문화를 매개로 한 대화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채택된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20일 본회의에서 21개 위원국의 합의로 채택된 '부산 선언'은 기존 세계유산 협약의 5가지 전략 목표(신뢰성, 보존, 역량 강화, 소통, 공동체)에 '협력(Collaboration)'이라는 새로운 6번째 목표를 추가했다. 유네스코가 유산 자체의 물리적 보존을 넘어, 이를 지켜온 '사람과 공동체'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치를 확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새로운 기조 속에서, 수천 년간 수행과 의례의 전통을 단절 없이 이어온 한국불교의 문화유산은 가장 훌륭한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전 세계의 조명을 받았다.

라자르 엘룬두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유산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훌륭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극찬했다. 나예프 알 파예즈 사무총장보 역시 유산 보호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한국불교 유산에는 단순한 국가유산을 넘어 사찰음식과 명상에 이르기까지 깊은 철학적, 정신적 의미가 담겨 있다"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한국 유산의 진면목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는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세계유산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평화와 협력의 해답을 '살아있는 유산'의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세계인 매료시킨 K-불교 체험

불교계는 회의 기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운영된 개최국 공식 전시관인 '세계유산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에서 불교 유·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렸다.

개관 첫날 'K-헤리티지 스테이지' 주무대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봉원사 영산재'가 장식했다. 유네스코 측의 특별 요청으로 마련된 이 무대에서 스님들은 장엄한 법고와 바라춤으로 국가의 평안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봉원사 주지 현성 스님은 "영산재의 범패는 우수한 한국 3대 전통 음악"이라며 "포용적 평화의 메시지가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등재된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도 한국불교의 가치를 알렸다.

해인사 부스에서는 고려시대 국난 극복의 염원이 담긴 팔만대장경의 '인경(경전 인쇄)'과 '판각' 시연이 열기를 띠었으며, 장경판전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3D·VR 체험도 제공됐다. 통도사 부스는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해 '금강계단 사리탑'을 향해 예불을 올리는 대웅전의 구조를 빛으로 구현해 내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보였다.

또 600년 역사의 서울 진관사는 산자와 죽은 자를 평등하게 위로하는 '수륙재'를 테마로, 철저한 고증을 거친 수륙재 전물(奠物)을 전시하고 서울시 무형유산인 전통 '지화(紙花)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는 국행수륙재 시연도 선보였다.

통도사서 직접 느낀 세계유산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자비”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7월 21일, 부산 홍법사서 봉행
장기기증·난치병 지원 ‘성과’
“생명의 꽃 피워 나갈 것” 다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생명나눔으로 희망을 잇겠습니다. 생명나눔 20년, 생명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나온 자비행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7월 21일 부산 홍법사에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했다.

‘생명나눔 20년, 생명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을 비롯해 본부장 심산 스님 등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전재수 부산시장,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수관 YC TEC 회장, 김수현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회장 등 정·관·재계 인사들과 신도, 자원봉사자 등 사부대중이 함께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의 백미인 비전 선포식은 새로운 20년을 향한 결의로 장엄됐다. 내빈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희망과 다짐을 적은 잎을 ‘생명의 보리수나무’에 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다 함께 비전 선언문을 제창하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널리 전할 것을 서원했다.



7월 21일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에서 주요 내빈들이 ‘생명의 보리수나무’에 희망의 잎을 다는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으며, 이 모든 성과는 사부대중의 원력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부처님의 자비는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이제 새로운 20년은 생명의 숲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부산지역본부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온 위대한 여정에 찬탄을 보낸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정여 스님은 격려사에서 “심산 스님을 비롯해 생명나눔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임직원과 불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치하했다.

정오 스님은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명나눔 실천의 중심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각계각층의 축하도 이어졌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백종헌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종웅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회장 등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축사를 전하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뜻을 함께했다.

법회에서는 생명나눔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복춘희 이사와 법경 스님이 부산광역시장 표창, 자인 스님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감사장, 부산광역시교육감 표창,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등 다수의 봉사자와 임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감기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온 국제신문, BNK부산은행, BBS부산불교방송에는 본부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생명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며 앞으로도 자비행의 저변을 넓혀갈 것을 서원하며 행사를 회향했다.

생명나눔 부산지역본부는 2006년 7월 21일 창립 이후 2026년 기준 장기기증 희망등록 6339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1만417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180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난치병 환우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496명의 환우에게 약 10억9910만 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병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새 사무실 개소

7월 21일, 양정불교회관 5층서
이윤희 회장 “화합으로 불교 중흥”



부산지역 200만 재가불자들의 구심점이 될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새 사무실이 마련됐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7월 21일 부산 양정불교회관 5층에서 사무실 개소 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발전과 화합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 법회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대표 자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김수현 부회장, 박대성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각 신행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정여 스님은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보이는 세계도 맑고 아름다우며, 내 마음이 혼탁하면 세상도 탁하게 보인다”며 “역경과 시련을 겪어내야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듯, 신도회가 화합하여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수행과 전법의 도량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이윤희 회장은 “부산의 200만 불자와 각 신행단체가 이곳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화합해야 한다”며 “부산불교의 굵직한 행사들이 원활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신도회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사무실이 각 종단과 신행단체가 자주 만나 소통하고 불교 발전을 논의하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오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심의 도시 부산에서 연합신도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과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사무실 입구로 이동해 현판 제막식을 열고 부산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2008년 11월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설동근 회장 체제로 출범했다. 이후 2대·3대 이윤희 회장, 4대 박대성 회장, 5대·6대 박수관 회장을 거치며 2012년 양정불교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부산 불교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24년 3월 이윤희 회장이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이어 올해 5월 범어사로부터 양정불교회관 5층을 사무실로 인가받았고, 정비 기간을 거쳐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명상으로 집착·분별 내려놔야”

진우 스님, 범어사 백중법회서
보물 지정 대웅전 벽화 참배도

“부산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살고, 한국불교가 살아야 세계가 정신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음에도 마음의 행복은 오히려 부족해진 현대 사회의 불안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금정총림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법석에 올라 현대인들의 마음 챙김을 위한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7월 18일 설법전에서 진우 스님을 초청해 ‘202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오늘날 전쟁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마음의 평화를 잃은 데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전해질 때 차별과 갈등이 없는 정토세상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모든 불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해결책으로 선명상을 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8일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에서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명상은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집착과 분별을 내려놓는 연습”이라며 “좋고 싫다는 분별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연기의 이치로 바라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중기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조상과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인 동시에 살아 있는 우리가 먼저 수행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자리”라며 “내가 먼저 해탈해야 인연 있는 영가도 함께 성불할 수 있다”고 설했다. 끝으로 “괴로움은 대상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며 “먼저 자신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꿀 때 가정과 사회, 세상도 함께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법문을 맺었다.

법회에 앞서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진우 스님은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깊은 인연이 있는 만큼 범어사를 늘 고향 같은 도량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며 “한국 선명상을 널리 알리며 국민들의 마음 평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만큼 오늘 법문이 모두에게 큰 수행의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회는 백중을 맞아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한편, 참석한 불자들이 선명상을 통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편 진우 스님은 이날 최근 보물로 지정된 범어사 대웅전 벽화를 참배한 데 이어, 범어사를 찾은 전재수 부산시장과 함께 성보박물관 특별전 ‘고려청자 발우와 고승 유묵전’을 관람하며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살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사찰 RE100’ 첫발

7월 22일, 업무협약 체결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사찰 RE100’ 달성에 나선다. 사찰 RE100은 사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이다.

범어사는 7월 22일 국민에너지전국회의(공동대표 최형욱), (주)국민솔라(대표 김대오)와 ‘대한민국 국민솔라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 주도 지역 에너지 공공개발 모델을 종교계가 수용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실천 사업으로 범어사는 산하 학교법인 소속 금정중학교와 해동중학교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한다. 실행기구인 국민솔라가 사업비 전액을 조달해 두 학교 지붕과 옥상에 약 1MW 규모의 공익형 발전소를 설치한다.

해당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138만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도시 가구 460여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매년 2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다.

전력 생산 수익금은 학생을 위한 ‘햇빛장학금’과 녹색교육 재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지 정오 스님은 “기후위기 극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맞게 실천하는 길”이라며 “국민이 전력생산의 주체가 되는 행보에 종교계가 동참해 생태문명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동용궁사, 기장군에 ‘자비의 쌀’ 전달

7월 16일, 백미 5000kg 기탁
기장군과 안전 인프라 논의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덕림 스님)가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해동용궁사는 7월 16일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이웃돕기 성품으로 백미 5000kg을 기탁했다. 기탁된 쌀은 기장군 관내 복지관 및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배분될 예정이다.

주지 덕림 스님은 “신도들의 정성으로 모인 공양미를 지역사회에 회향하는 것은 사찰의 당연한 책무이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자체의 노력에도 여전히 숨어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이번 해동용궁사의 자비의 쌀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덕림 스님과 우성빈 군수는 외국인 관광객 등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동용궁사 주변의 소방도로 등 안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기장군 해안길을 연계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 경제와 사찰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해 불인사, 법화경 천일기도 4차 회향

7월 19일, 백중 입재 특별법회
통도사 율월장 도암 스님 법문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 스님)는 7월 19일 백중기도 입재와 법화경 천일기도 100일 4차 회향을 기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명사 초청 법문으로 진행됐다. 법상에 오른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은 “법화경의 궁극적 가치는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성불하는 데 있다”며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집착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화경을 독송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노력이 수행자의 길”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송산 스님은 “법화경 천일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과 포교의 원력을 세우기 위한 정진”이라며 “100일마다 이어지는 특별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더욱 바른 신행과 수행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표충사, 2차 비단벌레 자연 방사

7월 30일, 인공증식 암·수 6마리
진각 스님 “천연기념물 보존 앞장”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비단벌레의 종 보전과 생태 복원을 위한 두 번째 자연 방사를 실시한다.

표충사는 7월 30일 오후 2시 수충루 앞에서 ‘인공증식 비단벌레 자연방사’를 개최한다. 이날 방사되는 비단벌레는 암·수 6마리로, (사)숲속의 작은 친구들이 표충사 일대에서 포획한 종충을 바탕으로 인공증식한 개체다. 본래 서식지인 표충사 사찰림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번 방사는 멸종위기종 복원은 물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각 스님은 “비단벌레 방사가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충사는 지난 2023년 도량 주변에서 비단벌레 서식지가 발견된 이후, 2024년 (사)숲속의 작은 친구들과 생태 연구 및 지속 가능한 종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체수 증식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 비단벌레 자연 방사에 성공했다. 당시 방사한 6마리는 현재까지 표충사 사찰림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명상 대중화 첫 지역 거점 센터 개원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센터
7월 22일 개원법회 봉행해
선명상 통한 정신건강 증진
웰니스 관광으로 지역 상생


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는 7월 22일 경북 영덕군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현판 제막식 후 진행된 내외빈 기념촬영.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조계종이 국민의 마음건강과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첫 지역 거점인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를 경북 영덕에 개원했다. 영덕 출신인 나옹왕사의 수행정신을 계승한 치유공간으로, 선명상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은 물론 전통문화와 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본부장 일감 스님)는 7월 22일 영덕군 창수면 장육사 인근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선명상중앙본부장 일감 스님,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 운영위원장 성행 스님,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해 개원을 축하했다.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는 영덕군이 조성한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내 시설을 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곳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불국사가 지원을 맡아 전통 수행과 현대 치유를 접목한 선명상 전문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서실장 남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현대사회는 갈등과 불안, 정신적 고통이 만연한 시대인 만큼 선명상은 현대인들이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음 처방전"이라며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는 종단이 추진하는 선명상 전국 보급의 첫 번째 지역 거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옹왕사의 화두 선명상을 기반으로 분별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이곳 영덕에서 지역사회와 결합하고, 전국의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전통문화와 치유관광을 연계해 지역과 상생하는 선명상 운영의 모범적인 표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운영위원장 성행 스님은 환영사에서 "이곳 영덕은 나옹왕사가 탄생한 성스러운 땅"이라며 "왕사의 걸림 없는 가르침은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마음의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명상중앙본부와 불국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영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명상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힐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도 축사를 통해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영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통문화와 현대 명상이 공존하는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는 기초 선명상과 간화선 체험을 비롯해 주말 1박 2일 선명상 입문과정, 나옹 간화선 캠프, 고래불 해변 맨발 걷기와 메타숲 명상 등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불국사·석굴암을 연계한 K-선명상 투어와 선명상 축제, 기업·기관 연수 프로그램 등도 마련해 선명상의 대중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함께 이끌 계획이다.

사찰림, 치유의 숲으로 거듭난다

국립공원공단·사찰 MOU 체결
해설프로그램 운영…연구 추진


'속리산 세조길 자연이야기' 역사·문화 해설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촉각 체험을 하는 모습.

사찰과 국립공원공단이 손을 맞잡고 사찰림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 이하 공단)은 사찰과 체결한 '공원보호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쉼터와 탐방로를 조성한다. 팔공산 은해사에서는 사찰림 훼손지를 복원하고 자생종을 식재한다. 가야산 심원사와 치악산 영원사에는 정자 등 쉼터와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내장산 백양사와 한려해상 부소암에는 문화자원 탐방로를 조성한다.

앞서 공단은 2024년부터 사찰숲과 시민을 잇기 위한 '경관 가치 증진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4년에는 예산 2억원을 투입해 북한산 성불사와 내장산 백양사의 훼손지를 복원하고 자생종과 차나무 등을 식재했다.

사찰림의 문화 가치를 알리는 역사·문화 해설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무등산 천년고찰 숲길여행'과 '속리산 세조길 자연이야기', '변산반도 내소사 전나무숲' 등 전국 11개 사무소에서 탐방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공원문화유산지구 가치 증진 방안 연구'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오랜 세월 숲을 지켜온 사찰이 공원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그 가치를 대중과 나눌 수 있는 '협력적 관리'로 정책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나주 다보사, 조선 후기 '신중도' 환지본처

조계종 문화부 협조로 귀환
19세기後 불화 양식 보여줘



1884년 조성된 나주 다보사 신중도가 조계종 문화부의 협조로 본래 봉안처인 다보사로 환지본처했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조선 불화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을 충실히 보여주는 성보문화유산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주 다보사(주지 만민 스님) 소장 19세기 불화인 신중도(神衆圖, 사진)가 조계종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의 협조로 환수돼 본래 봉안처인 다보사로 돌아왔다. 다보사는 이번 환지본처를 계기로 성보문화유산 환수와 보존 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환지본처된 신중도는 상·하 2단 구도로 구성된 불화로, 상단에는 제석천을 중심으로 한 신중을, 하단에는 천룡과 팔부중을 배치하고 있다. 화면에 등장하는 존상들은 정제된 도식성을 갖춰 19세기 후반 조선 불화의 전형적인 양식을 잘 보여준다.

채색은 홍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녹색과 청색을 조화롭게 배치해 안정감 있는 화면을 연출했으며, 안정적인 필선과 치밀한 세부 묘사를 통해 당시 불화의 높은 제작 수준을 보여준다.

신중도는 세로 133㎝, 가로 52㎝ 규모로 하단 화기를 통해 1884년(고종 21)에 조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화기에는 시주자의 이름과 제작 시기가 기록돼 있으며,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 조선 불화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을 충실히 보여주는 성보문화유산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지 만민 스님은 환수에 힘쓴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과 문화부 관계자 등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신중도의 환지본처를 계기로 그동안 다보사에서 반출된 성보문화유산들이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백양사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보사는 이번에 돌아온 신중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정밀 조사와 보존처리를 거친 뒤 신도와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근대 불화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성보문화유산 환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월정사 제71기 출가학교 입재

7월 13일부터 3주간 진행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7월 13일 '제71기 출가학교' 입재식을 봉행하고 3주간의 수행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출가학교에는 13세 최연소 참가자부터 68세 최고령 참가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27명(남 13명·여 14명)이 입교했다.

고불식에서 월정사 한주 혜안 스님은 출가학교의 의미를 '마음을 돌이켜 보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출가학교는 참선과 절, 참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과정"이라며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에는 큰 변화가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행자들은 3주 동안 예불과 운력, 선명상, 발우공양 등 승가의 일상과 수행을 체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우리문화硏, 전주 연꽃문화축제 성료

7월 18~19일 전주 덕진공원서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은 7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전주 덕진공원 특설무대에서 '2026 전주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형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첫날인 18일에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개회식이 열렸다. 우리문화연구원 이사장 화평 스님은 "축제 기간 동안 일상의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고 연꽃의 은은한 향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치사를 통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여 이겨낼 때 그 사람의 삶은 바로 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틀간 특설무대와 행사장 주변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화야몽', 덕제 스님 茶강의

7월 18일, 보제루서 시음회도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7월 18일 보제루에서 '2026 화야몽'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구충암 주지 덕제 스님의 '차의 세계-차의 효능과 건강관리' 강연과 차 시음회를 개최했다.

강연에 나선 덕제 스님은 "우리나라에도 차 문화의 전통이 깊었고, '다반사(茶飯事)'라는 말처럼 밥을 먹듯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며 "국민들이 중국이나 영국, 터키 사람들처럼 차를 물처럼 가까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화엄사는 오는 8월 8일 '제6회 지리산 대화엄사 모기장영화음악회'를 개최한다.

두 번째 화야몽은 8월 22일 열리며,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아 작가를 초청해 고향 구례와 가족, 역사, 사람과 삶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마 딛고 다시 천년 향해"

의성 운람사 보광전 낙성법회
산불 1년 4개월 만 복원 결실



지난해 3월 초대형 산불로 경내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던 의성 운람사(주지 등오 스님)가 중심 법당인 보광전 복원을 마치고 7월 17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산불 발생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복원 성과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 주지 등운 스님, 부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해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형수 국회의원, 최유철 의성군수,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과 지역 기관단체장, 사부대중과 불자 등 1000여 명이 동참해 보광전 낙성을 함께 축하했다.

운람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보광전을 비롯한 전각 6~7동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등 성보문화유산 18점은 긴급 이운돼 화마를 피했으며 현재 안전하게 보존된 가운데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은 봉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산불로 천년고찰 도량이 순식간에 재로 변했을 때의 참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며 "절망의 불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고 운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사부대중의 원력과 따뜻한 온정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호성 스님은 치사를 통해 "1300년 역사의 운람사가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등운 스님은 법문에서 "화마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도량을 세울 수 있는 인연 또한 생겼다. 오늘의 낙성은 다시 희망을 세우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운람사와 의성군은 총사업비 약 69억 4000만원을 투입해 현재 청허당과 산왕각 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전각은 오는 11월 준공된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계룡대에 혜자 스님 군포교 원력 새기다

7월 19일 공덕비 제막식 개최
군불교 총본산 건립 공덕 기려



조계종 제4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한 선묵 혜자 스님의 군포교 원력과 계룡대 홍제사 건립 공덕을 기리는 법석이 마련됐다.

계룡대 홍제사는 7월 19일 혜자 스님을 계사로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스님의 홍제사 창건 원력과 군포교 발전에 기여한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를 제막했다.

혜자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계가 불자의 삶을 지키는 근본이자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실천의 기준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계는 착한 일을 더욱 힘써 행하고 나쁜 일을 멀리하는 근본이며, 어두운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며 생명 존중과 보시, 청정한 생활, 진실한 언어, 밝고 맑은 지혜를 지켜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공덕비 제막은 혜자 스님이 군종교구장 재임 당시 계룡대 홍제사 창건을 발원하고 군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공로를 되새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님은 2017년 7월 제4대 군종특별교구장으로 취임한 당시 계룡대 영내 법당은 출입과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어 장병과 군인가족, 예비역,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열린 신행도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혜자 스님은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군불교 총본산이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영외 전법도량 건립을 발원했다. 부지 선정과 관계기관 협의, 예산 확보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시작된 홍제사 불사는 군 장병의 신행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수행 공간을 넘어 군인 가족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복합 전법도량으로 기틀을 세웠다.

한편, 이날 공덕비 제막식과 수계법회에는 108산사순례회와 도안사 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계룡대=노덕현 기자

4대 종교 성직자에게 '마음공부법'을 듣다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만남중창단' 종교인들 발제
각 종교별 마음공부법 전해

'心不見心', 불교 수행 본질
개신교, '예수마음' 공부 모델
가톨릭 '피정' 영신수련 소개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7월 18일 안양본원 3층에서 제27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4대 종교 성직자로 이뤄진 만남중창단이 강사로 나서 이웃종교의 마음공부법을 전했다. 사진은 만남중창단과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4대 종교 성직자로 이뤄진 합창단인 '만남중창단'이 화음 대신 각 종교의 마음공부법을 전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7월 18일 안양본원 3층에서 제27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여름을 맞아 열린 이날 계절발표회는 종교화합 중창단 '만남중창단'을 초청해 '이웃종교와 마음공부'라는 대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은 '불교의 마음공부, 참선-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를 통해 불교 마음공부의 본질을 살폈다. 성진 스님은 〈대승기신론〉의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니 마음으로는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구절을 통해 불교 마음공부법의 구조를 분석했다.

스님은 본래 마음을 '고요한 바다'에 비유했다. 무명의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듯 마음이 움직이고,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갈라진 뒤 좋고 싫음을 판단하고 생각을 이어 붙이며 집착·명명·행동·괴로움으로 전개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아는 것은 이미 생각이 일어나고 분별이 진행된 뒤의 모습"이라며 "본래 마음은 형상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 감각과 개념으로 붙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법(MBSR), 수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에 대해서는 효용을 인정했다. 판단하지 않고 감각을 알아차리거나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고, 찬물 세수나 감각 전환으로 충동적 행동을 멈추는 방식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들어 괴로움의 확산을 늦춘다. 그러나 성진 스님은 "이 방법들의 공통점은 '보는 나'를 남겨둔다는 것"이라며 "불교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갈라진 그 이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마음공부는 감정을 잘 관리하거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성진 스님의 설명이다. 참선은 '묻는 나'까지 돌이켜 보고, 염불은 흩어진 생각을 한 부처님 생각으로 모으며, 사경과 간경은 눈·손·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객이 갈라지기 전의 자리를 익히는 수행이다. 특히 마음은 대상으로 붙잡을 수 없기에 수행은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성진 스님은 "나와 대상이 분별되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한마음을 찾는 공부"라며 "불자는 본래의 깨끗하고 청정한 한마음을 전제로 참선이든 염불이든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간의 명상과 불교 마음공부를 혼동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움과 싫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하나 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교 수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개신교 김진 목사는 '개신교의 영성 이해와 마음공부'를 통해 개신교의 마음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웃종교 못지않게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풍부하다"고 밝힌 김 목사는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자리이고, 생각과 욕망과 의지와 사랑이 모이는 내면의 중심"이라며 "마음이 새로워지면 존재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면 삶 전체가 변화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개신교의 마음공부 모델이 '예수마음'이라고 소개했다. '예수마음'은 단순히 예수의 생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니셨던 마음, 사람을 향해 품으셨던 마음, 세상 속에서 살아내신 마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게 김 목사의 설명이다.



공연을 하고 있는 만남중창단.

김 목사는 '예수마음'의 핵심을 허(虛)·명(明)·정(靜)·일(一)로 집약했다. 김 목사에 따르면 허는 비워진 마음이고, 명은 밝은 마음이며, 정은 고요한 마음이고, 일은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향해 하나됨을 이루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신교의 영성수련으로서 마음공부는 '예수마음'이 우리를 통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을 덮고 있는 허상을 깨트리는 길"이라며 "참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허명정일'의 '예수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톨릭 하성용 신부(서울대교구)는 '천주교의 마음공부, 피정'에서 가톨릭 신자들만의 영신수련법인 '피정'에 대해 소개했다.

'피정'은 가톨릭 신자들이 영신생활이나 쇄신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묵상과 자기 성찰 등 종교적 수련을 할 수 있는 고요한 곳으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피정'은 성 이냐시오 로욜라가 저서 〈영신수련〉을 통해 실제적인 피정의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해당 저서는 1548년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 인가되고 교황 비오 11세는 이냐시오를 피정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면서 피정은 가톨릭의 수행법으로 자리잡았다.

19세기부터는 성직자들을 위한 연례 피정이 실시됐고 현재 교회법상으로는 성직자들은 3년에 한 번, 수도자들은 1년에 한 번을 피정에 참여하도록 명시돼 있다.

피정은 이냐시오 영신수련이 공부의 핵심이며 이는 '성경 관상'과 '의식 성찰'로 분류, 구성된다. '성경 관상'은 텍스트를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해 성경 장면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기도이며, '의식 성찰'은 하루를 마치며 내 삶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현존과 움직임을 돌아보는 것이다.

하 신부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단순히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식별하도록 돕는 '마음의 훈련 교범'"이라고 설명하며 "영신수련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신수련은 세상을 떠나 산속에 숨어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치열한 일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인지 분별해 '행복한 관상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웅 원불교 교무는 원불교의 마음공부법인 무시선법(無時禪法)을 소개했다. 박 교무는 "무시선법은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깨달아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며 "전생과 현생에 쌓인 업력과 습관성이 마음을 구속하기 때문에 본래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시선법의 핵심 원리로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것'을 제시했다. 분별과 집착이 없는 본래 마음을 바탕으로 삼되, 현실에서는 상황에 맞는 바른 판단과 행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음을 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을 실제 생활에서 선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천법으로는 육근이 무사할 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기르며, 경계를 만났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동정간 삼학병진'을 들었다. 또한 수행의 단계를 집심·관심·무심·능심으로 구분하고, 초입자는 경계를 만날 때마다 "지금이 공부할 때"라는 생각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교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욕심을 일으키는 물건도 모두 공부의 재료"라며 "경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속에서 끌리고 끌리지 않는 마음을 살피며 자유자재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사이에 '만남중창단'의 짧은 공연도 진행됐다. 이들은 선법가 '공심 공체 둘 아닌 노래'와 '행복을 주는 사람', '바람의 빛깔' 등을 열창했다. 발표 후에는 청중과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종교 간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다.

혜수 스님은 "은사이신 대행 선사께서는 종교는 이름일 뿐 모두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대행선연구원의 표어에도 나타나듯 불은 생명, 교는 생활이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리라고 선사께서 말씀하셨기에 신도들은 이웃종교에 대해서 그리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제 원고를 살펴보면 네 분의 종교인께서는 종교가 하나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오늘 발표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관념을 깰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교 간 대화와 마음공부의 의미를 강조했다. 혜선 스님은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종교인들이 함께한 데 대해 "한두 분씩 선원을 찾은 적은 있지만 4대 종교의 종교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귀한 일"이라며 "손가락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있어야 손의 역할을 한다. 다르다고 모두 같게 만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해불전 번역·아카이브 성과 '한자리에'

동국대 한국문학硏, 'K불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학술대회

8월 13일 통도사 해장보각서
구축 사업 2년 차 성과 발표
언해불전 9종 22권의 신번역
물성 데이터 등 연구 확대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5세기 언해불전 번역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일환)는 7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 차 성과 발표 학술대회 '한글 너머 온(On), 불을 켜다'를 오는 8월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일반 대중 등 200여 명이 함께한다.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15세기 조선 전기에 간행된 〈석보상절〉을 비롯한 언해불서 18종 88권을 대상으로 그 안에 담긴 불교사상과 언어, 민중문화, 인쇄·제지 기술, 사회제도와 물질문화에 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연구소는 시맨틱 기술을 활용해 전문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신번역 3종 7권과 동일 분량의 서지 조사·촬영을 완료하고 '시맨틱 맵 작성'과 'AI-OCR', '미디어아트'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업 2년 차를 맞은 올해에는 불교한글문화유산 9종 22권의 신번역과 9종 23권의 서지 조사·정밀 촬영을 수행하고 종이의 물성 데이터, 인쇄 방식에 따른 AI-OCR의 인식 차이, 인공지능 기반 지식정보 아카이브의 구현 가능성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

김일환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장은 "올해 사업 성과의 의미는 고문헌을 보존하고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속 지식정보를 서로 연결해 누구나 검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성과가 교육, 창작, 전시, 영상, 미디어아트와 같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전했다.

2년 차 성과를 발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3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하정수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아카이브 사업단 총괄팀장의 사업 성과 전반 보고와 김 연구소장의 3년 차 사업 계획 발표가 진행된다.

제2부는 '불교한글문화유산 콘텐츠의 구축과 구현'을 주제로 △최애리 사업단 디지털 큐레이션팀장의 '15세기 불교한글문화유산의 지류(紙類) 물성 데이터 구축과 활용' △김소정 나라지식정보 인문인공지능연구소장의 '목판과 활자, AI는 어떻게 다르게 읽는가—〈월인석보〉·〈석보상절〉 AI-OCR 비교를 통해 본 15세기 인쇄기술과 한글문화콘텐츠' △서소리 바키타랩 CTO의 'AI 활용 기반 불교한글문화유산의 지식정보 아카이브 구현'이 발표된다.

제3부에서는 남권희 전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송일기 중앙대 명예교수, 김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순석 전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김상일 동국대 명예교수, 김성주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이병기 한림대 인문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이어 "연구소는 앞으로도 학술적 엄밀성과 디지털 기술의 창의적 활용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3년 차에는 '불교한글문화유산 활용 공모전' 등을 추진해 시민과 학생, 연구자와 창작자가 사업의 성과를 직접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등사 명부신앙 면면을 만나다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의 불교미술Ⅱ' 기획전

2027년 3월 7일까지 전시
보물 '명경대' 등 성보 선봬



강화 전등사 약사전 현왕도. 사진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천년고찰 강화 전등사에 전해지는 명부신앙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7월 16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강화의 불교미술Ⅱ: 전등사-삶과 죽음 사이, 명부세계(冥府世界)'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천년고찰 전등사에 전해지는 명부 신앙 관련 불교 유산을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명부세계에 대한 믿음이 죽음 이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공덕을 쌓고자 했던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소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명부를 향한 믿음'에서는 전등사 명부전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이 신앙의 대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2부 '명부로 들어서다'에서는 죽음 이후 명부세계 시왕(十王)의 심판을 다루며, 3부 '살아서 준비하는 명부'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 공덕을 쌓아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자 했던 '생전예수재'를 소개한다.

전시에는 발원문 작성, 명경대 거울 체험, 〈예수천왕통의〉에 기록된 전생의 빚 확인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요소도 마련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전시는 전등사 불교 유산을 통해 옛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상상하고, 살아 있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공덕을 쌓고자 했는지 보여주는 자리"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침묵의 영토에서 기르는 평온

⑤⓪ 묵언수행(默言修行)

默言修行

우리는 늘 소음 속에서 살아간다. 오늘날의 소음은 단지 입으로 쏟아내는 말에만 머물지 않는다. 쉴 새 없는 정보 탐닉과 SNS 대화, 짧은 영상에 쉼 없이 빠져드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흩뜨리는 소음이며, 어쩌면 오늘날의 '현대판 구업(口業)'인지도 모른다. 그 소음 속에 오래 머물수록 마음은 점점 본래의 고요함을 잃어간다. 이제는 바깥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맑은 마음을 회복해 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묵언수행(默言修行)'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선방에서는 안거(安居)에 들어가기 전, 묵언 정진을 할 수행자를 미리 신청받는다. 대중이 그가 묵언 수행자임을 미리 알아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서로를 배려하며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묵언은 밖으로 흩어진 마음을 안으로 거두고, 화두에 온전히 몰입하게 하는 수행의 방편이다.

가톨릭 영성가 토마스 머튼(1915~1968)도 저서에서 침묵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려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입을 열어 나의 방어를 시작할 때 침묵은 깨진다. 내 명예와 억울함에 대한 방어를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 드릴 때, 비로소 참된 침묵이 시작된다." 그의 말처럼 침묵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려는 에고를 내려놓고, 고독 속에서 참된 내면의 음성을 듣게 하는 깊은 기도의 길이다.

명나라 문인 진계유(1558~1639)도 〈소창유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보통 때의 기운이 들떴음을 알았고, 침묵을 지키고 나니 지난날의 언어가 조급했음을 알았다."

손에서 키보드를 내려놓고, 눈에서 모니터를 거두어 온전히 자신과 마주한 채 잠시 침묵해 보라. 그러면 이 말의 뜻을 금세 실감하게 될 것이다. 바깥의 소음을 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울림과 마주하게 된다.

고려의 고승 원감 국사 충지(1226~1292)는 이러한 경지를 한 편의 선시로 노래했다.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바로 대답하고/ 네가 내게 물으면 내가 바로 대답했지/ 이 사이에 불법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껏 실 한끝도 들어갈 틈 없었나니.

시 속의 '나'와 '너'는 누구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일렁이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참된 '나'다. 번잡한 소음과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침묵의 방에 홀로 앉을 때, 비로소 나와 너가 둘이 아님을, 곧 불이(不二)를 깨닫게 된다. 스스로를 부르고 스스로에게 고요히 응답하는 시간. 그 침묵은 마음에는 잔잔한 평온을 채우고, 삶에는 향기로운 덕을 길러 준다. 마침내 우리를 깊고 고요한 곳으로 이끈다. 묵언이 주는 수행의 기쁨이다. 〈회순 불암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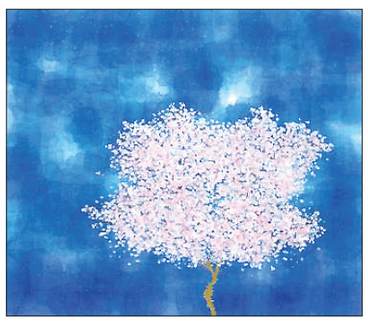
향기 만난 선명상

서울 충정사, 성영록 개인전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향기로 숨 쉬는 시간' 개최

서울 충정사(주지 덕운 스님)는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충정 갤러리&스튜디오에서 성영록 화가의 개인전 '향기로 숨 쉬는 시간'을 개최한다.

'향기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진 성영록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대표작인 '봄날' 시리즈와 '은매도' 시리즈 등 1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충정사가 운영하는 선명상 치유 프로그램과 성영록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2층 법당에서 빈백 소파에 누워 선명상을 체험하고, 1층 갤러리에서는 작품 감상과 함께 향기를 맡으며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작가가 직접 조향에 참여한 향수를 시향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성영록 작가의 작품 '그 사람은 봄날'.

덕운 스님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시각과 후각을 아우르는 깊은 휴식을 선물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충정사를 찾는 불자는 물론 선명상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도 감각을 깨우는 새로운 치유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1일 출발~11월06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90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동참금 : 369만원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출발일 : 9월28일 출발~10월13일 도착
▶ 동참금 : 590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1월24일 출발~12월03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성지순례 6일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330만원

부탄성지순례 7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10월21일~27일(7일간)
■ 일정: 인천-방콕-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엔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따뜻한 무관심이 신행으로 이끈다”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⑥

인터뷰 | 조계종 기획실장 묘장 스님

체험 통해 ‘다음 만남’ 기약
“종책 앞서 스님들 의지 중요”
사찰 특성별 포교 방안 마련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최근 젊은 세대가 불교에 호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강요하지 않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꼽힌다. 산사음악회와 템플스테이, 불교박람회 등도 신도 확보보다 문화와 쉼을 나누는 기회로 인식되면서 부담 없이 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사진〉은 이러한 호감이 실제 신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무관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절을 처음 찾은 이들에게는 ‘차 한잔하실래요?’ ‘사찰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먼저 다가서는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체험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향을 피우고 초를 밝히거나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경험도 중요하다. 공감과 대화를 통해 사찰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다음 만남’을 만드는 일이 다. 묘장 스님은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털어놓은 이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초를 밝혀보라거나 인등을 켜보는 등 부담 없는 실천을 권할 수 있다”며 “다시 절을 찾을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신행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병원’을 예로 들며 “병원에는 접수와 안내를 거쳐 의사를 만나게 되지만, 절은 종무소에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찰에서 스님을 볼 수 없다면 병원에 왔는데 의사를 못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이 절에 왜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사찰에서 스님들이 하루 몇 시간이라도 대중과 함께하며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불교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청년 불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 연화사의 사례도 소개했다. 스님이 주지로 있는 연화사는 청년 공양 프로그램 ‘청년밥심’을 계기로 대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이는 청년회 가입과 수계로 연결됐다. 올해 청년 수계자는 예년 15명 안팎에서 6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계를 받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조계종 신도증을 발급받으며 불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반기 수계법회 추가 개최 요청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묘장 스님은 “청년들을 신도나 노동력이 아닌 함께 성장할 인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편하게 머물며 천천히 불교에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은 종단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각 사찰에서 스님들이 스스로 변하고 노력해야 한다. 스님들의 의지 없이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찰마다 현실에 맞는 포교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묘장 스님은 “일괄적인 시스템보다는 각 사찰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포교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주지 스님들이 연속성을 갖고 포교 정책을 실현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문가 제언

‘어떻게 살까’ 묻는 청년 품는 생활공동체로

강의 중심 지식 전달 아닌
佛法 일상 구현 ‘생활 교육’
사찰 · 청년 관계 ‘공동체’로
경험 쌓이는 관계 지속돼야

최근 몇 년 사이 불교를 대하는 청년들의 태도가 분명 달라졌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불교계 내부에서도 여러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물음은 청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기대, 혹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는 우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물음과 상반된 해석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청년들은 왜 지금 불교를 찾는가, 불교에 대한 청년들의 호감과 관심을 신행으로 연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신행(信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불교는 대중에게 가장 호감 가는 종교”라고 말한다. 실제 여러 종교 인식 조사에서 불교는 오랫동안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로 조사된다. 호감은 때로 관심으로 이어진다. 관심은 호감 가는 대상에 대한 능동적 탐색을 이끈다. 책을 찾아 읽고, 사찰을 방문하고, 명상(참선)을 배우고,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행위들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불교가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흐름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관심을 어떻게 신행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포교 현장에서 ‘신행’은 불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찰공동체의 일원으로 수행과 기도, 법회, 의례, 봉사 등에 참여해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신행 활동은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법회와 기도, 수행, 의례 등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활동이다. 둘째는 불교대학 등을 통한 교리 교육이다. 셋째는 보시와 자원봉사 같은 보살행 실천이다. 넷째는 사찰의 신도회 활동이다. 신도회는 법회, 기도, 자원봉사 활동 등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신행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그들의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불교를 찾는 청년들의 문화와 요구에 맞춰 새로운 내용이 더해져야 한다.

오늘날 청년들은 불안과 번아웃, 고립, 우울 속에서 불교를 찾는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마련은 부모세대에 비해 구조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됐다. 게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금융위기,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들은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 불안은 일상의 정서가, 생존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템플스테이 참가 동기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참가자들은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자기성찰, 삶의 의미 탐색, 자기성장, 자연과의 관계 회복 등을 중요한 이유로 꼽는다. 이를 보면 청년들이 찾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다. 청년들은 불교를 지금과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욕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청년 포교는 여전히 법회와 교육, 각종 신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하는 데 머물러 있다. 이러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기준이다. 그렇다면 신행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게 ‘신행’은 불교의 가르침을 새로운 삶의 기준이자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안되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한마음선원 청년회의 여름수련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신행은 문자 그대로 믿음과 실천이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신(信)·해(解)·행(行)·증(證)의 네 단계로 설명한다. 신(信)은 부처님과 불법을 믿는 것이고, 해(解)는 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행(行)은 그렇게 이해한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증(證)은 그 실천을 통해 삶이 변화하고 진리가 자기 삶에서 확인되는 단계다.

따라서 신·해·행·증은 단순히 수행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세계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양식으로 살아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행은 교육과 수행, 법회와 기도, 보살행 활동 각각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생활공간과 사회적 활동공간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들에게 신행은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제안돼야 한다. 이를 위한 신행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불교 입문 교육을 ‘교리 교육’에서 ‘생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입문 교육은 교리를 지식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실제 교육도 일방향의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기와 사성제, 자비를 개념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배우는 교육이다. 연기를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자비를 직장에서의 갈등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소비와 노동, 쉼의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배우고 익혀야 한다. 입문 교육은 불교를 아는 교육을 넘어 불자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생활 교육으로 구성돼야 한다.

둘째, 사찰과 청년의 관계를 ‘프로그램’에서 ‘생활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찰에 머무는 이유는 좋은 프로그램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통해 맺은 좋은 관계 때문이다. 따라서 사찰은 법회와 행사에 청년들을 초대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최근 일부 사찰에서 운영하는 청년밥심, 수행과 휴식을 위한 올데이 프로젝트 등과 같은 시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계이다. 함께 밥을 먹고 고민을 나누며 공부하고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경험이 쌓일 때 사찰은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일주문에 들어선 많은 청년들이 있다. 한국불교가 이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불자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과 함께 불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양식과 공동체여야 한다.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7차분 7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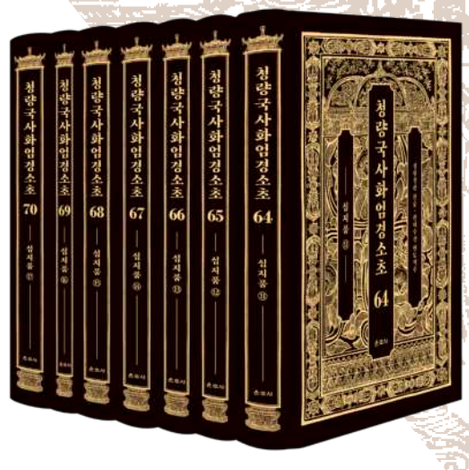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70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십지품」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사람으로 잇는 불교, 공동체로 잇는 신행”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⑥

인터뷰 |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

‘힙불교’ 넘어 지속가능 포교시스템 필요
체험형 프로그램 · 소그룹 · 멘토링 구축
생활불교, ‘함께 살아가는 불교’로 전환
“미래세대 포교 사업, 반드시 투자해야”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불교에 호기심을 갖고 입문한 초심자들이 신행인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으로 연결돼야 지속가능하다”며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신중일 기자

‘힙(Hip)불교’. 엄숙했던 불교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 불교박람회와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등은 MZ세대의 발길을 사찰로 이끌며 불교에 대한 새로운 호감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 호감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관심과 신행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과제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7월 7일 현대불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화는 불교로 들어오는 입구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수행”이라며 “좋은 첫인상을 통해 형성된 호감을 관심과 신행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생활불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르치는 불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불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체험형 프로그램과 공동체 중심의 신행 문화를 한국불교 포교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다.

Q 젊은 세대의 불교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불교를 향한 젊은 세대의 관심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공간을 찾습니다. 불교는 종교 이전에 명상과 치유, 성찰의 문화로 다가가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불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이것도 불교였나”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호감을 관심으로, 관심을 신행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포교 핵심입니다.

Q 문화를 통해 불교를 만나는 시대, 포교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참선이나 절을 권하면 청년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먼저 ‘불교는 즐겁다’는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연과 전시, 음악, 문화 콘텐츠는 불교와 친해지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문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문화는 입구이고 수행은 목적입니다. 문화적 경험이 사찰 방문으로 이어지고, 스님과 도반을 만나 수행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신행이 시작됩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나 군종교구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넓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호감을 신행으로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미래세대 포교는 사찰의 실천과 종단의 지원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구 동화사는 올해 6월 처음으로 어린이 법회를 개설하며 미래세대 포교에 모범을 보였다.

Q ‘호감’이 지속적인 관심과 신행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씨앗을 뿌렸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재정, 그리고 종단과 사찰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종단이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도 사찰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동화사는 올해 처음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법회에 161명이 참여했고, 현재 단체 대화방에는 30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오면 부모도 함께 오기에 실질적인 인원은 500명 이상입니다. 사찰이 적극적으로 법회를 운영하면 포교부는 법요집과 어린이 법회 음악 콘텐츠 등을 지원합니다. 사찰의 실천과 종단의 지원이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교부는 미래세대 포교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별 포교역량 결집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7월 19일에 열린 부산 · 경남 결집대회 모습.

Q ‘생활불교’ 정착을 위해 포교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불교는 일상에서 계율·간경·염불·참선·보살행인 5대 수행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교부에서는 이 중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조계사에서는 ‘결계포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님들의 수행문화였던 포살을 재가불자들도 정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체험형 프로그램과 신행단체 활동을 연결해 신행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불교의 핵심은 ‘가르치는 불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입니다.

Q 초심자와 청년층이 신행인으로 정착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처음 찾은 사찰에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인연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찰에서는 새로 온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종단에서는 새신도 지침서와 5대 수행법, 신도증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도증을 갖게 되면 사찰 소속감, 불자의 자긍심을 지니게 되면서 자발적인 신행으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신행은 결국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이어지기에 소그룹·멘토링처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포교부는 올해 4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출가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출가 부스 운영진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 포교부

Q 지역 사찰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포교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 사찰에 맞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밀양 사찰의 경우 작은 도시라 법회 참석 인원은 많지 않지만 신심은 매우 깊습니다. 통도사의 단계별 불교대학, 범어사의 세대별 멘토링처럼 각 도량의 특색을 살린 모델을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종단에서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Q 온라인 포교와 오프라인 신행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불교를 접한 사람들이 사찰에서 수행과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포교부에서는 모바일 신도증 등 디지털 기반 신행 서비스도 함께 확대해 일상과 신행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듯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포교가 가능합니다.

Q ‘호감–관심–신행–생활불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거창 ‘붓다선원’은 워크어웨이(Workaway)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일정 기간, 하루 3시간 반 정도 노동을 하면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구성원 중 불교를 알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불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찰음식도 먹고, 스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강의도 듣고, 울력도 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하는 등 선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심을 가지게 되고, 그 신심이 또 신행으로 이어집니다. 신행이 깊어지면 진정한 불자가 되고, 불자가 되면 더 깊은 신행과 발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정해놓기보다는 새로운 인연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잘 이어주는 것입니다.

Q 올 한 해 주력하는 대표 사업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창립 40주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강화와 대전·세종·충청에 이어 이번에 부산·경남에서도 지역별 포교역량 결집대회를 열어 미래세대를 위한 포교 기반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한국불교는 미래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로는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은 물론 3D·4D 기술을 활용한 재미와 교육을 함께 담은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흥미로 불교를 만나고, 그 만남이 신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래세대 포교는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30년 뒤 한국불교를 위한 투자라는 마음으로 종단과 사찰, 불자 모두가 함께 원력을 모아야 합니다. 포교부도 그 길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책에 빠지기 좋은 계절, 여름! 더위도 잊게 만들어 줄 불광출판사의 책

고양이와 함께한 사계절의 기록, 전 세계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다!
보경 스님 ‘고양이 에세이 3부작’
영국·독일·스페인 등 14개국 메이저 출판사와 판권 수출 계약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보경 지음 | 권윤주 그림
값 22,000원

고양이를 읽는 시간
보경 지음 | 권윤주 그림
값 22,000원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쾌하게
보경 지음 | 권윤주 그림
값 22,000원

10년간의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려간 산중 암자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
생각하는 스님에게 고양이가 다가와 깨우쳐 준 것들

불교 공부는 어렵지 않다, 원영 스님과 함께라면!
불교가 처음인 사람도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시리즈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원영 지음 | 값 18,000원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지음 | 값 18,000원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지음 | 값 18,000원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지음 | 값 18,000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연기 등 주요 교리부터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까지 한 권으로 마치는 불교 공부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2~7/2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벼리는 불교가 궁금해	변택주	불광출판사	6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2	대승기신론 신강	지안	조계종출판사	7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원영	불광출판사
3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법상/용정운	조계종출판사	8	한글경전 모음집	적행	비움과소통
4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석지현/윤창화/일지	민족사	9	화엄경 약찬게 풀이	김현준	효림
5	주요 우빠니샤드 18책	현진	조계종출판사	10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6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한글 원각경	함허득통/원순	법공양	7	밀어 붙여라	수불	해조음
3	부처님의 생애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8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오진탁	자유문고
4	금강경 역해	각묵	불광	9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5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툴레	김영사	10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세트	원영	불광출판사

난해한 〈근본중송〉, 마침내 읽히다



나가르주나의 중도

마크 시더리츠·가쓰라 쇼류 지음
김성철·홍창성 옮김
불광출판사
3만2000원

인도 대승불교 중관학파 핵심 논서
440개 게송에 방대학 주석 덧붙어
美·日 학자 주석서 4종 비교·분석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서기 150년경 저술된 나가르주나의 〈근본중송〉은 인도 대승불교의 사상적 토대를 이룬 중관학파의 핵심 논서다. '공(空)'과 '연기(緣起)', '중도(中道)'라는 철학적 담론을 담아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초기 대승 경전의 '모든 존재는 공하다'는 선언을 논증하며 아비달마론자인 대론자(對論者)들의 주장을 논파했지만, 원전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다. 총 27품 440여 개의 극도로 압축된 게송으로 구성된 데다, 2000년간 방대한 주석과 해석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해함을 해소하고 나가르주나의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는 해설서 〈나가르주나의 중도〉가 번역·출간돼 주목된다. 인도불교철학의 권위자인 마크 시더리츠 일리노이주립대 명예교수와 세계적 불교논리학자 가쓰라 쇼류 히로시마대 명예교수가 십여 년간 공동 연구한 결실이다.

두 저자는 현존하는 인도 주석서 4종(작자 미상의 〈불외론〉, 붓다팔리타의 〈중론주〉, 바비베카의 〈반야등론〉, 찬드라키르티의 〈명징한 언어〉)을 비교·분석해 가장 적절한 해석을 선별했다. 이를 바탕으로 게송을 번역하고 현대적 분석을 더해, 각 게송이 겨냥한 대론자와 논쟁의 맥락, 논증 전개 과정을 명확히 밝혀냈다.

국내 번역은 산스크리트 원전 연구와 불교학 기초 연구를 이어 온 김성철 금강대 교수와 불교철학의 현대적 해석에 힘써 온 홍창성 미네소타주립대 교수가 2년여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번역은 두 교수가 전담했으나,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불교학자 5명(김성철·박수현·유선경·임승택·홍창성)이 온라인에서 격주로 함께 강독하며 검증한 연구의 공덕이 담겼다.

나가르주나는 〈근본중송〉에서 동료 불교도들을 청중으로 삼는다. 주목할 점은 당시 청중들이 오직 '다르마(法)'만이 궁극적으로 실재한다는 아비달마 학파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다르마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면서도 고유한 자성을 지니며, 이 궁극적 진리를 깨달을 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나가르주나는 다르마가 실재한다는 대론자의 주장을 배격한다. 인격체나 복합물이 자성 없는 개념적 허구이듯, 다르마 역시 자성이 없으며 애초에 고유한 자성을 지닌 실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것은 공(空)하다'는 나가르주나의 입장에는 이러한 사유가 담겨 있다.

아울러 나가르주나는 오온(五蘊)이 궁극적으로 실재한다고 받아들인 대론자들의 관점을 반박한다. 나아가 잘못된 견해와 번뇌조차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대상의 실재를 믿게 한 '진리와 오류'라는 견해를 근원적으로 끊어내려 한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환상으로 고통받으며 '잘못된 견해와 번뇌만큼은 궁극적으로 실재할 것'이라 오인하기 쉽지만, 나가르주나는 치밀한 논증으로 이 전제마저 철저히 깨뜨린다.

이 책은 난해한 불교 고전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논증 구조를 정교하게 추적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고정관념과 극단적 사고를 넘어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전환시킨다. 저자들은 "한국어 번역본을 통해 나가르주나의 사고에 접근, 이해를 증진하는 작업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깨달음과 행복의 만남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세스 주이호 세갈 지음
박찬국 옮김
운주사
2만2000원

現 서양인의 불교 일부 수용 한계
에우다이모니아 통합 모델로 대안

불교의 깨달음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접점을 다룬 신간이 출간됐다. 선불교 승려이자 예일대 의대 임상교수를 지낸 임상심리학자 세스 주이호 세갈 박사가 쓰고,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옮긴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다. 대원불교 학술총서의 47번째 권으로, 동서양 두 사상의 깊이 있는 비교 분석을 담았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책은 불교의 '깨달음'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개념인 '에우다이모니아(인간 번영과 성숙)'를 비교 분석한다. 불교의 서구 전파 과정과 '가변성의 역사'를 조명하고, 현대인이 전통 불교 교설을 수용할 때 겪는 문화적·지적 갈등을 짚어낸다.

저자는 고통과 욕망의 종식, 윤회의 중단, 철저한 자기희생 등 전통적 불교 개념이 현대 서양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에 결여된 연민과 자비를 보완해, 불교의 깨달음과 에우다이모니아를 통합한 현대적 덕목 모델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 모델은 욕망과 혐오에 대한 분별력 있는 지혜, 생각에 대한 비집착, 순간에 대한 마음챙김, 무아와 상호연결성의 인식, 그리고 공동체 참여와 자비의 실천을 아우른다. 저자는 이 모델이 현대 서양인의 세계관에 부합하며, 진정한 개인적·사회적 복지를 실현할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갈애와 건강한 열망을 구분해 감각적 쾌락의 조절과 심미적 가치를 옹호하고, 무아·공 사상을 현대 신경심리학의 '중앙 제어 장치 없음' 개념과 연결해 자아 집착의 해악을 밝혀낸다. 아울러 무조건적·무차별적인 자비심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성을 보완한 현대적인 '자리이타' 윤리를 정립한다.

책은 우주의 궁극적 구조에 아집을 내려놓는 '형이상학적 겸손'을 유지하면서도, 일상 속 실천적 지혜만으로 가치 있는 삶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동서양 철학의 융합을 담은 이 책은 불교를 현대인의 삶에 맞게 풀어내는 실천적 길잡이를 제시한다. 배희정 기자

"우파니샤드, 부처님 가르침 선명히 해"



주요 우빠니샤드 18책

현진 스님 옮김
조계종출판사
7만5000원

현진 스님, 우파니샤드 18책 번역
"신앙서 종교로 나아갈 때 가늠자"

봉선사 범어연구소장 현진 스님이 전통 우파니샤드의 핵심 18책을 완역한 〈주요 우빠니샤드 18책〉을 출간했다. '스승의 발아래 가까이 앉아 전수받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뜻의 우파니샤드는 인도 철학과 종교의 원천이자,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과 내면의 본질인 '아트만'이 하나라는 '범아일여(梵我一如)'의 깨달음을 담은 인도의 철학서다.

이번 신간은 현재 전해지는 200여 종의 우파니샤드 중 가장 비중 있는 핵심 18책을 모아 번역한 성과다. 현진 스님이 인도 푸나에서 4~5년에 걸쳐 조시 교수, P.G.랄레 교수에게 1대 1로 가르침을 받으며 기록한 내용을 2년간 다듬어 완성했다.

후대의 주석이나 제3국 언어에 의한 왜곡을 거치지 않고, 산스크리트어 원문 어원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의 결을 살렸다. 책은 우파니샤드의 사상적·역사적 배경과 핵심 철학을 다룬 1부와, 주요 18책의 본문 번역 및 각주를 담은 2부로 구성됐다.

현진 스님은 7월 20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 '담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출간 소식과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기존 번역서들이 5책~15책 수준이거나 일부 단행본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 책은 18책을 한데 엮어낸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파니샤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우파니샤드는 절대자 순종 구조를 띤 신앙적 성격으로,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불교와 대척점에 서 있어 근본 가르침을 더욱 또렷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진 스님은 이를 패키지여행과 자유여행에 비유했다. 돈만 내면 편하지만 내 경험이 되기 어려운 패키지여행이 '신앙(힐링)'이라면, 과정은 힘들어도 온전히 내 것으로 남는 자유여행은 '종교(수행)'라는 의미다. 스님은 "불교에 입문할 때는 힐링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차 종교·수행 영역으로 깊이 나아가야 한다"며 "우파니샤드는 신앙부터 시작한 사람이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일 때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도철학뿐만 아니라 세계철학·역사·문학 이해를 위한 산스크리트어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스님은 관련 연구자들을 위해 원문이 담긴 학습용 교재를 봉선사 범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배희정 기자



현진 스님이 7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간 출간 소회를 밝히고 있다.

마음을 밝히는 지혜, 오래 간직할 경전

소중한 분과 나에게 경전을 선물하세요

QR코드를 찍고 바로 주문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41,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3,5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3,5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34,000원
- 유마경
  무비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스님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25,500원
- 극락의 경전
  보광스님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일지스님 옮김 | 12,500원

민족사 대표 경전을 고급 장정 세트로 만나보세요.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승가 화합·정법 위한 안전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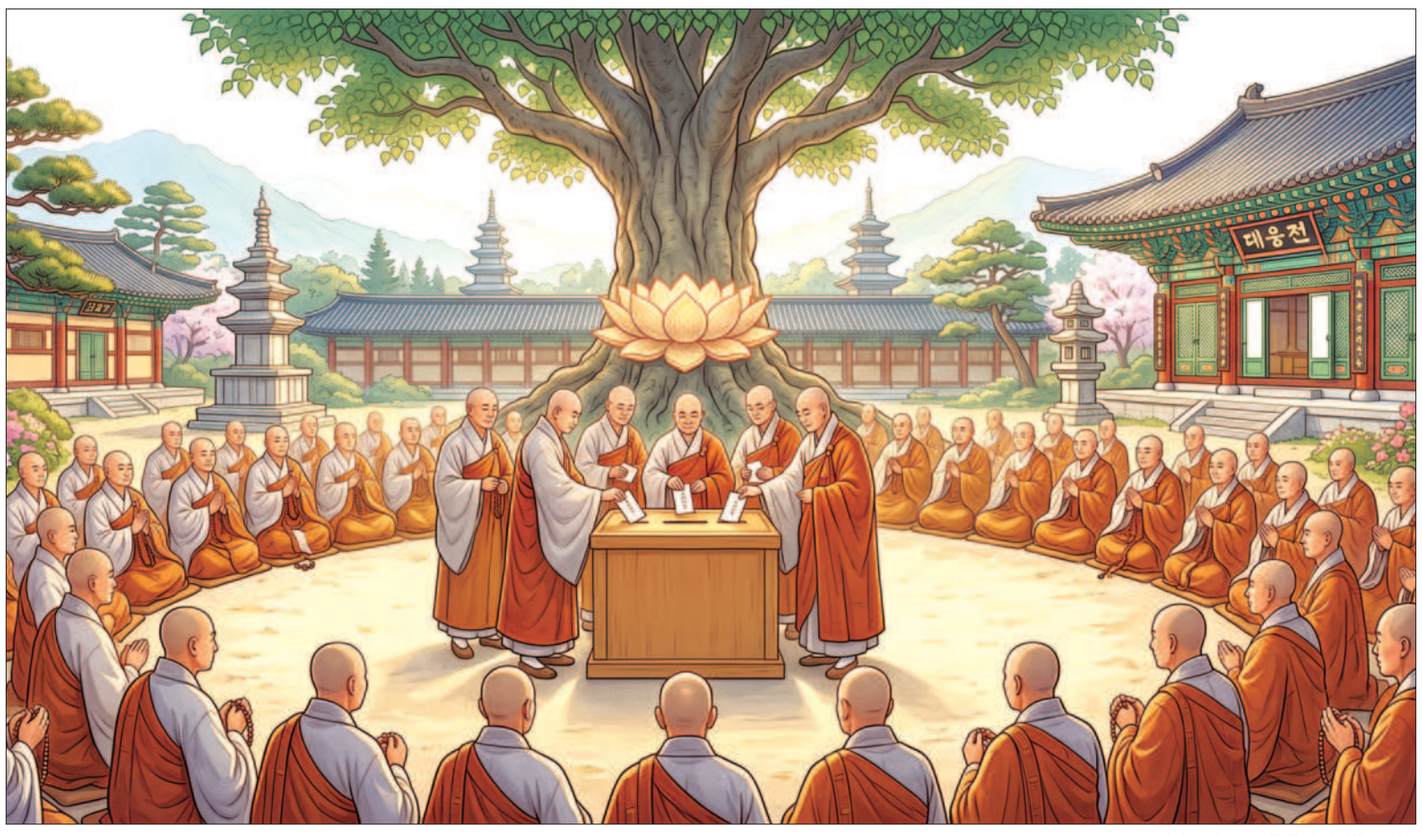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⑦ 승가의 선거(투표)

Yāvakīvañ ca bhikkhave bhikkhū samaggā sannipatissanti samaggā vuṭṭhahissanti samaggā saṅgha-karaṇīyāni karissanti, vuddhi yeva bhikkhave bhikkhūnaṃ pāṭikaṅkhā no parihāni.

비구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승가 행사를 하는 동안은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번영이 기대될 뿐 쇠망은 없을 것이다.

–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 –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6월 3일에 우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를 치렀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참여하고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실천한 것이다. 나라의 선거 말고도 종교, 특히 이웃 종교인 천주교에도 교황을 선출하는 전통적인 과정이 있다. 이 또한 현대적 의미의 선거로 볼 수 있다. 천주교의 가장 대표적인 선거 방식은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단이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Conclave)'다. 다만 이는 특수한 직책을 가진 일부가 참여하는 제한적 선거인 반면, 불교 승가는 '갈마(羯磨)'의 조건에 따라 모든 비구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든 비구가 한자리에 모여야 하지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들이 매번 물리적으로 함께하기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승가는 **'결계(結界, sīmā)'** 구역을 설정했다. 결계란 특정한 지역을 승가의 자치 권역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이 구역 안에 상주하는 모든 비구는 승가의 핵심 행사인 포살(布薩)·자자(自恣)·갈마에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결계 구역은 주로 사원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반드시 인근 마을을 포함했다. 비구들이 탁발을 통해 수행 생활의 기본인 식(食)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계는 큰 바위, 강의 분기점, 누구나 알 수 있는 마을의 큰 나무 등 명확한 자연 지형이나 지적 표식을 연결해 지정했다. 이 결계 구역은 오직 승가의 활동 영역일 뿐, 세속의 토지 소유권이나 행정 구역의 경계와는 무관하다. 결계 내의 승가는 철저히 독립성을 유지하며 이를 '현전승가(現前僧伽)'라고 부른다. 결계 구역은 구성원들의 수행 생활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으며, 안거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계가 성립된 현전승가는 승가의 청정함과 화합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교주(教主)'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주의 독단 대신 승가 대중의 공의(公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승가의 구성원인 비구는 세속의 나이나 법랍,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붓다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붓다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지만, 열반 이후에는 붓다가 남긴 '법(Dhamma)'과 '율(Vinaya)'에 의지해 각자 깨달음을 성취해 나갔다. 결국 법과 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비구 개개인이 정법(正法)의 기준이 되며, 그 비구들로 이루어진 승가 자체가 붓다를 대신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 **승가 선거, 갈마 따라 모든 비구 참여**
> **절대 권력 교주 없이 대중 공의 중시**
> **결계 구역 비구 '만장일치' 합의 원칙**
> **논쟁 시 다수결 '다멱비니' 최후 수단**

Ye hi keci Ānanda etarahi vā mamaṃ vā accayena atta-dīpā viharissanti atta-saraṇā anañña-saraṇā, dhamma-dīpā dhamma-saraṇā anañña-saraṇā, tamatagge me te Ānanda bhikkhū bhavissanti ye keci sikkhā-kāmā' ti.

阿難 自熾燃 熾燃於法 勿他熾燃 當自歸依 歸依於法 勿他歸依.

佛告阿難 吾滅度後 能有修行此法者 則爲眞我弟子第一學者.

아난다여, 지금이나 내가 가고 난 후에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지 말며,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 이와 같이 수행하며 배우기를 구하는 비구들이야말로 내 제자 중 가장 최고의 수행자가 될 것이다.

–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 –

붓다는 열반에 들기 전, 자신을 대신해 승가를 이끌거나 대표할 후계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때 교주의 자리를 탐했던 제바달다가 권력을 요구했을 때도, 심지어 상수제자인 사리불이나 목건련에게조차 승가의 통솔권을 부촉(咐囑)하지 않았다. 이처럼 불교는 특정 개인의 지배를 배격하고, 각 개인의 자율적인 수행 생활을 철저히 존중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는 철저하게 대중 전체의 뜻을 물어 결정했다.

승가가 의결을 거치거나 분쟁(쟁사)을 해결할 때, **가장 이상적인 원칙은 결계 구역 내의 모든 비구가 참석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비구가 있다면,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하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여욕(與欲)'**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정법과 계율에 의지해 사는 비구들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견해 차이나 지역적 관습으로 인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논쟁이 가라앉지 않을 때 활용하는 최후의 해결 수단이 바로 다수결이며, 이를 '다멱비니(yebhuyyasikā, 多覓毘尼)'라고 부른다.

다멱비니를 통해 승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투표를 공정하게 주관할 소임자를 선정한다. 이 소임자는 법과 율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탐애(chanda)·성냄(dosa)·어리석음(moha)·두려움(bhaya)이라는 네 가지 편견(사아곡)에 빠지지 않고**, 대중의 이익과 불이익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 이 스님을 '행주인(salākagāhāpaka, 行籌人)'이라고 부른다. '행주'에서 '주(籌)'는 대중의 수를 세거나 투표할 때 쓰던 대나무 막대기(산가지)를 뜻하며, 흔히 '산가지를 잡는다'고 표현하는 데서 유래했다.

여기서 현대 사회의 다수결과 승가의 다수결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현대 선거는 단순히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이 승리하지만, **승가의 다수결은 반드시 '여법(如法,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에 부합함)'을 주장하는 편이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행주인은 단순한 투표 관리자가 아니라, 정법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적극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다.

만약 투표 결과가 정법을 주장하는 이들(여법설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행주인은 산가지 선택 과정에 개입해 정법을 따르도록 유도하거나, 최후의 경우 투표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었다. 불교의 의사결정에서는 대중의 뜻이 아무리 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과 율에 어긋난다면(비여법) 결코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소수라면, 행주인은 법에 근거해 반대편(비여법설자)을 끊임없이 설득해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야 했다. 진리가 왜곡돼 전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투표와 설득의 과정을 반복했던 것이다.

붓다는 대중들이 가급적 다수결에 의존하기보다, 법과 율에 의지해 대화로 논쟁을 해결하기를 바랐다. 다수결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은 이유는, 표결 결과가 자칫 승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가의 회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됐으며, 행주인은 대중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고 끝내 화합할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야 했다.

즉, 승가의 다수결은 다수가 소수를 누르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화합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서로를 납득시키고 올바른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치열한 설득의 과정**이었다. 또한, 어리석은 다수가 잘못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끝까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붓다는 밧지족의 불퇴법(不退法)을 제시하며, 승가 역시 이와 같이 행한다면 오랫동안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 중심에는 늘 '승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의식을 행하고 소통하는 화합'이 있었다. 붓다는 특정 개인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 대신 대중 스스로가 법과 율에 의지해 바르게 살아가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화합하는 공동체를 정립하고자 했다. 설령 의견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분열되지 않고, 끝내 화합함으로써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정법)이 이 땅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랐던 것이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88호 | 14 | 전면광고

깊은 바다는 파도가 없으며
늘 고요하고 잔잔하다.
마음에 평정을 이룬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고성
- 부지 : 359평
- 건물 : 대웅전(목조). 요사채. 삼성각. 종각(황동)
- 국유지 약700평 사용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 가액 : 2억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124-5길. 황룡사
- 총1197평/대지1080/기타117평
- 대웅전43평. 삼성각2평. 용왕각3평. 요사채1층38평 외 공양간30평. 2층 25평. 주차공간넉넉. 태양광 6W CCTV등등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사찰 앞 50평) 총 710평 그외 사찰에서 사용가능한 땅 500평
- 건물 : 슬라브 3동, 향토방 2동 해우소(화장실) 1동 (선물은 모두 무 건물입니다)
- 금액 : 5억원

010-9203-1165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포교원 급매

- 위치 : 경남 김해시 인제로 131 분성암
- 규모 : 2층 40평
- 5존 불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주치 용이
- 보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 1,000만원

010-9343-565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40평, 방2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권리금 없음)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개인사유로 매매합니다.

광명선원 010-6297-40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 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 구룡사 입구
- 규모 : 토지 대지 182평
- 사용면적 : 약 1000평 법당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공양간
- 법당, 공양간, 집기일체 보시함
- 지은지 2년된 최신 건축물 입니다.
- 보시금 2억5천 절충가능합니다.

033-344-0778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면적 : 약 1,200평(대지, 임야 등)
- 대웅전, 요사채 약 80평
- 가액 : 8억원(토지 공시지가 이하)
- 사찰 이외 타 용도 사용 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 5천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댐 인근
-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 및 대지 약 600평, 요사채 50평 법당 가건물 30여평 정도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대출 2억 8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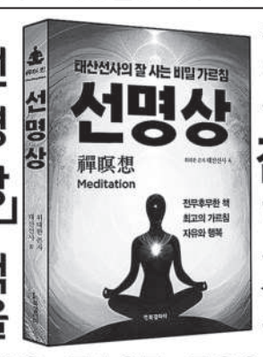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꼭 선명상 책을 읽어보세요



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49재 · 천도재 기제사 · 구병시식

사찰 방문시 무보시(무료)로 지내드립니다.

부산 서구 묘법사

010-2168-2800

전국 사찰 양도양수 전문업체입니다.
사찰 매물 접수(구함) 받습니다.

금호이엔지
010-2236-1339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피리·바라·극락무 올려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성불사'**에서는 **조상천도 '독' 불공**을 **3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접수 기다립니다**

010-2204-837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민불종 무료장학 모바일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 기간 : 수시
- 자격 장소 : 남녀 누구나 집, 사암, 직장 등
- 학과 사주, 육효 한글작학등 25과

사무장비구니 요양사 복지사 자격소지 불학 역학무료 연구. 급여가능

Daum NAVER 역학대통령

02-907-5858
010-2693-7712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여름, 세 번의 참배로 마음을 새롭게 하다

삼사순례는 왜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가

삼사순례는 하루 동안 세 곳의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불교 신행문화다. 겉으로 보면 세 절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 사찰에서 한 번 참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 도량을 이어 걷는 까닭은 발원과 성찰, 실천의 마음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 곳을 차례로 찾는 형식에는 마음을 한 번 내는 데서 끝내지 않고, 거듭 살피고 다지는 뜻이 있다. 첫 도량에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았다면, 다음 도량에서는 자신의 허물과 집착을 바라보고, 마지막 도량에서는 앞으로의 삶을 서원한다. 따라서 삼사순례의 핵심은 방문한 사찰의 수가 아니라, 참배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 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침묵과 기다림까지도 마음을 닦는 수행의 일부가 된다.

순례의 첫걸음은 '멈춤'이다. 현대인은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돌아볼 겨를이 없다. 산문에 들어서며 휴대전화와 일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대웅전 앞에서 합장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속도를 늦춘다.

두 번째 참배는 '비움'이다. 살아오며 쌓인 걱정과 원망, 욕심과 후회를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이다. 세 번째 참배는 '발원'이다. 나와 가족의 평안을 비는 데서 나아가 이웃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일상으로 돌아간 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게 된다.

三寺

이처럼 삼사순례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기복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몸으로 길을 걷고, 입으로 염불하며,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종합적인 신행이다. 세 번의 참배는 흐트러진 마음을 거듭 바로잡는 과정이며, 익숙함에 묻혀 잊고 있던 초심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여러 도량의 서로 다른 분위기와 수행 전통을 접하면서 불교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여름철 삼사순례는 더욱 특별하다. 무더위는 몸을 지치게 하지만 짙은 녹음과 계곡물 소리, 산사의 바람은 마음을 맑게 한다. 땀을 흘리며 산길과 돌계단을 오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작은 수행이 된다. 편안함만을 찾기보다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평소에는 외면했던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사찰에 도착해 마시는 한 모금의 물과 그늘 아래 잠시 누리는 쉼도 새롭게 다가온다. 불편을 견디고 길을 완주하는 경험은 삶의 어려움 또한 성급히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준다. 산사의 여름은 더위를 피하는 휴식처를 넘어 몸과 마음의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수행의 공간이 된다.

삼사순례는 혼자 떠나도 좋지만 가족이나 도반과 함께할 때 또 다른 의미가 생긴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부처님께 절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동안 관계의 매듭이 풀리고 감사의 마음이 자라난다. 평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순례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되새길 수 있다. 세대가 다른 가족이 함께한다면 신앙과 전통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소중한 교육의 장도 된다.

특히 안성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산과 들, 전통사찰이 어우러져 하루 삼사순례를 진행하기에 알맞다. 이동 부담이 크지 않고 도량마다 자연환경과 역사적 분위기가 달라 짧은 일정 안에서도 순례의 흐름과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넓은 들과 산길을 지나며 세 사찰을 잇는 과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일상에서 수행으로, 번잡함에서 고요함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여정이 된다.

순례를 마친 뒤 중요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이다. 절에서 세운 발원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때 삼사순례는 비로소 완성된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화가 날 때 한 번 더 호흡을 살피는 것 모두가 순례의 연장이다. 산사에서 얻은 평온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 참된 회향이다.

올여름, 마음이 지치고 삶의 방향이 흐릿하다면 삼사순례의 길에 올라보자. 세 번의 참배는 세 번의 소원 빌기가 아니라, 멈추고 비우고 다시 시작하는 세 번의 마음공부다. 산문을 나설 때 우리는 처음 길을 떠날 때보다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명칭이 규정짓는 '공공성'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⑪ 같은 돈, 다른 이름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다. 배낭을 메고 산길에 오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풍경 하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사찰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매표소에서 돈을 내야 했던 장면이다. 이 갈등은 2022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소재로 등장할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다. 드라마 속 가상 사찰 '황지사'는 사찰 앞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받고, 사찰을 관람할 뜻이 없었던 통행자는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사람들의 불만은 단순한 오해만은 아니었다. 일부 사찰의 매표소는 사찰 경내가 아니라 등산로나 도로의 길목에 설치돼 있었다. "절에 가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과 통행자에게까지 일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은 부당한 통행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불교계 역시 이 문제에 좀 더 일찍 세심하게 안내했어야 했다.



매표소는 사라졌다. 이제 문화유산 보존 비용을 특정 종교를 위한 지원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갈 자산에 대한 투자로 바라보는 언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문화재관람료'가 '통행세'가 되기까지

그러나 그 돈의 공식 명칭은 '통행료'나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관람료'였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문화재 공개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는 제도였다.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국보와 보물, 전통 건축, 주변 숲과 산을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주체이자 생태 지킴이이기도 했다. 이 갈등이 커진 데에는 국가 책임도 있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만 폐지되고 문화재관람료는 남으면서, 국가가 조정해야 할 문화유산 보존 비용이 사찰과 탐방객 사이의 갈등으로 떠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통행세', '금품 갈취', '현대판 산적'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번졌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는 말까지 나왔다. 개인의 불만이나 댓글이 아닌, 정치의 언어까지 제도적 갈등을 특정 종교의 탐욕으로 번역하면서 문화재 보존의 공공성은 시야에서 밀려났다.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왜 길을 막고 돈을 받느냐"는 질문만 남았다.

'매표소'가 사라지자 '특혜'가 등장

오랜 갈등은 2023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주요 사찰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방문객은 사찰 입구에서 직접 돈을 내지 않게 됐고, 기존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나 '쉼터'로 바뀌었다.

이제 매표소는 사라졌다. 그러나 문화재를 보존하고 공개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비용 부담의 주체가 방문객 개인에서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동안 사찰과 등산객 사이에 떠넘겨져 있던 문화유산 보존 비용을 공공 재정이 분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자 언어도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다. 과거에는 사찰이 직접 돈을 걷는다며 '통행세'라고 비판하더니,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자 이제는 '혈세', '특혜', '과도한 예산', '조삼모사'라는 말이 등장했다. 직접 걷으면 '통행세'이고, 국가가 지원하면 '특혜'가 된다. 매표소를 두면 돈을 뜯는다고 비난받고, 매표소를 없애면 세금을 가져간다고 비난받는다. 방식이 달라져도 불교와 관련된 비용은 늘 비난의 언어 안에 놓인다.

입장료 폐지 후에도 문화재관람료 남아
문화재 보존 비용, 사찰 · 탐방객 갈등 돼
정당한 지원에도 불교 관련 예산엔 비난
세계청년대회 지원 설명에 '공공성' 부각
불교도 '지원금' 명칭 대신 목적 드러내야

물론 국고 지원이라고 해서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원 금액의 산정 근거와 집행 내역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과 비용의 성격을 처음부터 '종교 특혜'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면, 그것은 특정 종교의 사익만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웃 종교 행사는 어떻게 '교류'가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바라보게 된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국의 가톨릭 청년들이 교황과 함께 신앙을 나누는 대규모 국제 종교 행사다. 조례안의 비용추계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합쳐 약 972억 원 규모가 거론됐다. 아직 확정 예산은 아니지만 공적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국제행사라면 안전, 교통, 숙박, 급식, 의료 등에 공공 행정이 개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 지원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지원을 설명하는 '언어'다.

세계청년대회는 공식적인 설명 속에서 단지 '가톨릭 신앙 행사'로 머물지 않는다. '세계 청년들의 교류', '국제적 위상 제고', '관광산업 활성화', '경제적 파급 효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말들이 대회를 둘러싼다. 종교 행사는 국제행사로 확장되고, 신앙 공동체의 모임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문화적 투자로 번역된다.

이러한 설명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청년이 서울을 방문하면 관광과 문화교류, 지역경제에 일정한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종교 행사의 외연을 사회 전체의 공공성으로 넓혀주는 언어가 '모든 종교에 똑같이 허용되고 있는가'이다.

같은 세금에 붙는 서로 다른 이름

불교의 문화재 보존 비용 역시 관광과 지역경제, 문화유산 향유,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공적 효과를 지닌다. 사찰이 관리하는 국보와 보물, 전각과 숲은 불교 신자만의 종교적 재산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용을 설명하는 언어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특정 종교를 위한 시혜적 지원금이 아니라, '천년 문화유산 보존비'이자 '국민 문화향유를 위한 공공비'이다. 오래된 전각과 불화, 탑과 경전을 지키는 'K-헤리티지 보존 투자'이며, 사찰림과 산사 주변의 생태 환경을 돌보는 '전통 경관·생태 보전비'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관광을 떠받치는 '지역문화 기반 투자금',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온전히 넘겨주기 위한 '미래세대 문화자산 기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돈을 받는 행위' 뒤에 가려져 있던 비용의 실제 목적을 다시 드러내는 말이다. 명명하는 이름이 달라지면 사고와 태도도 달라진다. '지원금'이라고만 부르면 특정 집단에 돌아가는 돈처럼 보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투자'라고 부르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지가 보인다. '종교 예산'이라는 말은 수혜자를 앞세우지만, '국민 문화향유 비용'이라는 말은 그 혜택을 누리는 시민을 앞세운다. 말은 현실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떤 비용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게 만들기도 하고, 특정 집단만의 이익으로 보게 만들기도 한다.

사라진 매표소, 새로 세워야 할 언어

매표소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 남은 말도 바뀌어야 한다. 문화유산을 보존해 온 비용을 특정 종교에 주어지는 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물려받고 함께 지켜야 할 자산에 대한 투자로 말해야 한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단지 어느 종교에 얼마가 지원되느냐가 아니다. 왜 누구의 공공성은 쉽게 발견되고, 누구의 공공성은 좀처럼 이름을 얻지 못하는가. 우리는 어떤 비용에는 미래와 교류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다른 비용이 지켜온 역사와 문화와 생태의 가치는 왜 충분히 말하지 않았는가. 같은 비용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예산서의 숫자만이 아니다. 그 숫자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언어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일일시호일

가족 위해 버틴 13년 한국살이, 신장암 앞에 멈춰
"다시 일해 아내와 두 아들 돌보고 싶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만줄라 씨, 홀로 한국서 생계 부양
병원비 4000만 원…앞으로 치료도 큰 부담
한 가정 무너지지 않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부처님 공덕에 음악·춤·공양 펼치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⑭ 부산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의 비천벽화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의 비천벽화. 향좌측부터 기악비천(2폭)–공양비천(1폭)–가무비천(2폭).

한 건물에 세 불전이 통합된 구조
7칸 빗반자 천정에 42폭 비천벽화
주악·가무·공양 벽화에 예악 사상
음악, 무용, 공양물 세세생생 헌공

팔상전(3칸)			독성전(1칸)	나한전(3칸)		
가무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가무비천 (3명)	공양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가무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감실천정		감실천정		감실천정	
가무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가무비천 (3명)	공양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가무비천 (3명)	주악비천 (3명)

팔상전(3칸), 독성전(1칸), 나한전(3칸)

부산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捌相獨聖羅漢殿) 건물은 독특하다. 건물명 속에 그 특징이 들어있다. 하나의 건물에 팔상전, 독성전, 나한전의 세 불전이 통합돼 있다. 세 건물은 원래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독립적이었다. 일제가 1904년에 발행한 〈한국건축조사보고〉를 보면 중건 이전의 모습이 보인다. 3칸 건물인 팔상전과 나한전은 서로 독립된 건물이고, 두 건물 사이에 '천태문(天台門)'이라는 한 칸의 출입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태문'은 독성인 나반존자가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남인도 천태산의 상징적 의미다.

이후 천태문을 독성전 전각으로 개축한 후 세 건물을 한 건물처럼 연결해 오늘날의 모습처럼 7칸의 가로로 긴 형태로 바꿨다. 그때를 1905년으로 추정한다. 그런 사실은 1907년에 제작한 '팔상나한독성각중건 급 제성상신화성기' 현판 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판에는 팔상전, 나한전, 독성각을 중건하고 각 성상과 불화를 새롭게 그려 봉안한 불사를 1905년 학암 스님이 중심이 돼서 시작해 1906년에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팔상독성나한전은 정면 7칸, 측면 1칸의 가로로 장대한 모습을 띤다. 향좌측부터 팔상전(3칸)-독성전(1칸)-나한전(3칸)의 대칭 구조다. 세 건물을 통합한 하나의 불전이지만, 막상 들어가면 서로 독립 공간으로 명확히 분리돼 있다.

팔상독성나한전 건물은 측면이 ㅅ모양의 지붕을 한 맞배 건축이다. 맞배 건축의 가구 구조에 따라 내부의 앞뒤 천정을 서까래와 같은 물매를 가진 빗반자 천정으로 가설했다. 건물 한 칸의 천정마다 세 폭의 빗반자로 나눴다. 그래서 정면 7칸에 21폭의 빗반자 화면이 나타난다. 맞배 건축이라 전후가 같으므로 빗반자 천정에 3×7×2=42 해서 모두 42폭의 빗반자 화면을 자연스럽게 조성했다. 이런 사례는 대단히 희귀한 장면이다. 장인 예술가들은 빗반자 천정에 마련된 이 42폭의 화면을 환희심 넘치는 장엄 예술 갤러리로 재해석했다.

한국 산사 법당에서 빗반자 천정에 그린 가장 대표적인 장엄 소재는 비천이다.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과 춤을 펼치는 가무비천, 과일·꽃·차·향 등 다양한 공양물을 올리는 공양비천을 그려 부처님 설법 공간에 충만한 환희심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 영덕 장육사 대웅전, 문경 김용사 대웅전,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의 빗반자 천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비천이 등장하는 비천벽화의 장대한 갤러리다. 무려 42폭의 화면에 비천세계를 펼쳤다. 비천벽화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는 비천장엄의 향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악 18, 가무 18, 공양비천 6

비천은 주악비천, 가무비천, 공양비천의 세 부류로 나눈다. 범어사에선 세 비천이 모두 나타난다. 42폭의 화면에 대칭과 균형감각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치했다. 정면 7칸을 향좌측부터 가무비천-주악비천-가무비천-공양비천-주악비천-가무비천-주악비천의 순서로 그렸다. 비천의 배치 라임에 리듬감이 뱄다. 주악비천과 가무비천은 각각 3칸의 앞뒤 빗반자에 그렸지만 공양비천은 정중앙인 독성전 1칸 앞뒤 빗반자에만 귀하게 그렸다. 그 배열을 평면도 식으로 펼치면 다음과 같다. 〈표 참조〉

42폭의 벽화 중 주악비천과 가무비천은 각각 18폭씩이고 공양비천은 6폭이다. 벽화 속 비천의 모습은 한결같이 앳된 동자, 동녀다. 42명의 동자 중 15명만 여성이고 나머진 모두 남성으로 보인다. 15명의 여성은 모두 춤사위를 펼치고 있는 가무비천이다. 이들은 모두 구슬을 장식한 전립을 쓰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무비천도 원래 18명이다. 전립을 쓴 사람이 15명으로 여성이고 쓰지 않은 가무비천 3명은 하나같이 붉은 끈을 머리에 장식한 남성이다. 같은 가무비천 무리 속에서도 머리 장식으로 성별을 구별하고 있어 흥미롭다. 가무비천의 춤사위 속에 디딤과 사위의 조합이 잘 표현돼 있어 시선을 끈다.

전통춤에서 디딤은 지면 접촉과 반력을 수용하는 발동작이고, 사위는 몸의 흐름과 강약을 조절하는 팔동작이다. 춤 몸짓에서 수족은 서로 상응해야 한다. 디딤과 사위, 굴신을 통해 디디고 맺고 어르고 풀어 신명과 환희로 승화시키는 춤사위가 벽화 속에 오롯이 담겼다. 그 모든 춤사위 몸짓 하나하나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에 대한 예경과 찬양, 환희지(歡喜地)가 스며 있다. 그래서 불교무용을 '작법(作法)'이라 한다. 가르침을 몸동작으로 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몸을 굽히고 펴는 굴신은 삼보에 귀의함을 뜻한다. 맺고 어르고 푸는 춤사위가 곧 법이고 예경이다.

주악비천 17가지 악기 연주

벽화에 나오는 42명 비천의 헤어스타일이나 머리 장식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형식이 보인다. 42명을 머리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립을 쓴 비천: 15명 △모란꽃 형상의 화관을 쓴 비천:12명 △붉은 끈 장식을 한 비천: 9명 △민머리: 5명 △연잎 모자를 쓴 비천:1명. 전립을 쓴 비천 15명이 모두 여성이고 가무비천이었다면 화관을 쓴 비천 12명은 모두 남성이고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비천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벽화 속에 등장하는 악기는 장구, 소고, 소라, 생황, 횡적, 운라, 해금, 대금, 꽹과리, 징, 비파, 바라, 나팔, 박, 태평소 등 모두 17가지 전통악기들이 나온다. 18폭의 주악비천벽화 중에서 장구가 두 차례 나오는 까닭에 악기 종류는 17가지다. 전통악기의 진열장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의 편재이고 규모다. 범어사 비천벽화에서도 앞서 내소사 대웅보전 악기벽화 연재에서 그 생김이 특이하다고 언급한 박 악기가 나오는데, 두 곳 모두 단 두 개의 나무 편으로 만든 단순한 형태로 묘사해서 인상적이다.

주악비천은 본질적으로 〈무량수경〉 등의 경전에서 표현하는 '하늘에서 저절로 울리는 음악'의 상징이다. 부처님 설법회상에서, 또는 극락정토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부처님 공덕에 대한 예경의 소리이면서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불교음악을 '범패(梵唄)'라 한다. '범'은 우주법신의 부처님이고, '패'는 소리이자 음악이다. 즉, 부처님의 공덕을 찬하는 음악을 말한다.

범어사 42폭의 비천벽화 중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벽화는 독성전의 앞뒤 빗반자 천정에 만 그린 여섯 점의 공양비천이다. 공양비천은 어느 비천보다도 앳된 동자의 특성이 뚜렷하다. 머리 형식도 붉은 끈으로 두 곳을 묶은 쌍상투다. 옷차림도 특별히 다르다. 격식을 갖춘 두루마리 차림이고 몸가짐도 단정하며 정중하다. 조선 유교 사회에서 사회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정립한 핵심 사상이 예악(禮樂)이다. 예는 질서이고 악은 조화다. 예(禮)가 지나치면 사회가 경직되기 쉽고, 악(樂)이 지나치면 무질서로 혼란스럽다. 주악과 가무비천 벽화 속에 여민락의 악이 담겨 있다면 공양비천벽화 속엔 공경의 예가 녹아 있다. 비천벽화 기저에 정중동과 예악 사상이 흐른다. 그것은 불교 진리인 중도와 통한다. 무릇 불교 조형장엄은 법의 방편반야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공양비천은 무엇을 공양 올리는가? 벽화 속 공양비천은 공양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혹은 큰 접시나 함지박에 담아 헌공한다. 공양물은 모두 과일이다. 부처님 손 모양으로 생긴 열대 과일 불수감도 있고, 석류, 천도, 가지를 비롯해서 개구리참외, 수박, 연꽃도 보인다. 희한하게도 수박은 윗부분을 잘라 총총히 박힌 씨앗을 드러나게 해서 공양 올린다. 석류와 가지와 씨앗 총총한 수박, 참외는 사실상 같은 의미다. 씨앗 가득한 것이 다득남의 상징물들이다. 천도는 장수의 의미이고, 불수감은 다복의 의미, 연꽃은 청정한 마음이다. 공양물 속에 득남과 수복의 기복 바람이 담겼다.

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의 42폭 비천벽화 속에 춤과 음악과 공양물을 세세생생 지심귀명례로 헌공하는 벅찬 환희지가 영겁으로 담겼다.



노재학 작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앵무새가 떨어트린 물방울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⑥ 지성(至誠)의 힘 : '앵무새의 날갯짓'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말이 있다. 글자 그대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이다. 원래 이 말은 친구인 지성이와 감천이 설화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앉은뱅이 지성이를 봉사인 감천이가 업고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어느 날 옹달샘에서 커다란 금덩이를 발견하고 부처님께 바쳤더니 지성이는 일어나 걸었고 감천이는 눈을 뜨게 됐다는 이야기다. 이와는 다른 몇 가지 버전이 전하지만,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큰 복을 내린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이런 설화가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 하나쯤 실천한다고 상황이 바뀌겠어?'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선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해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않는 등의 실천이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왔다. 그런데 몇 해 전 이런 내 생각을 부끄럽게 만든 계기가 있었다. 어느 종교단체에서 종이컵 대신 머그잔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면 현금으로 적립되고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던 것이었다.

당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말을 직접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실천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게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시골에 사는 나는 도시로 나갈 때면 종종 버스를 이용했으며, 가까운 거리면 걸어 다녔다. 이산화탄소 감축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불교 동화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다. 다행인지 부처님이 전생에 앵무새였을 때의 이야기가 〈잡보장경(雜寶藏經)〉에 전하고 있었다. 이 동화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옛날 히말라야 숲속에 환희수(歡喜首)라는 앵무새가 다른 동물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거대한 산불이 발생하게 됐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무서운 기세로 번졌으며, 숲속의 동물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작은 앵무새 역시 위험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날개가 있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앵무새는 가까운 호수로 날아갔다. 그리고 온몸을 물에 푹 적시고 불길이 타오르는 숲으로 돌아가 날개에 묻은 물방울을 털어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물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앵무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숲과 호수를 수백 번 오가면서 이 행동을 반복했다. 숲에서 나오는 연기에 눈은 따가웠으며, 깃털 또한 불길에 그을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앵무새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동안 이 숲에서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나무와 벗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찌 두고 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앵무새는 숲과 호수를 끊임없이 오고 갔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석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앵무새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앵무새야, 네 작은 날개에 묻은 몇 방울의 물로 이 거대한 산불을 끌 수 있겠느냐? 이제 그만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거라."

이 말을 들은 앵무새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대답했다.

"몇 방울의 물로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숲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벗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앵무새였을 때 이야기
산불 끄려 온몸 적셔 물방울 털기 반복
정성에 감동한 제석천, 비 내려 산불 잡아
민둥산→축령산 일군 임종국 선생 떠올라
지성 어린 작은 실천도 세상 변화 힘 돼

앵무새의 말에 감동한 제석천은 신통력을 발휘해 많은 비가 내리도록 했다. 순식간에 거대한 산불은 모두 꺼졌고 숲은 다시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됐다.

지성(至誠), 세상을 바꾸는 힘

앵무새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고사가 떠올랐다. 그는 공부를 마칠 때까지 내려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어기고 염증을 느껴 산에서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냇가에서 도끼를 갈고 있는 노파를 만나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파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 한다고 답했다. 이백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노파는 이백을 꾸짖으면서 말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도끼는 바늘이 될 수 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이 나오는 말이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初心不忘 磨斧作針)"는 명언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백은 산으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했고 후에 시선(詩仙)이라 불릴 만큼 큰 인물이 됐다. 동화 속 앵무새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불을 껐다는 이야기와 묘하게 닮은 것 같아 소개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앵무새 이야기와 유사한 사례가 전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전남 장성에 있는 축령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편백 숲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을 지금처럼 울창한 숲으로 가꾼 인물이 있는데, 바로 춘원(春園) 임종국(1915~1987) 선생이다. 그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진 '붉은 민둥산'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재를 털어 축령산에 편백과 삼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나무를 심느냐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라는 생각으로 나무 심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때는 혹독한 가뭄으로 애써 키운 수많은 묘목이 타들어 가기도 했다. 그는 가족과 인부를 동원해서 매일 산 아래에서 물을 날라 나무에 뿌려주었다. 그 결과 이곳의 나무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그가 황무지에 심은 나무만 해도 279만 그루에 달한다고 한다. 나무를 가꾸느라 전 재산을 탕진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정부가 직접 나서 선생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있다. 삶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산림욕의 성지' 축령산은 앵무새의 날갯짓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어떠한 작은 변화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앵무새가 산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나, 임종국 선생이 산에 편백을 심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앵무새나 임종국 선생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숲이 타들어 가고 산이 벌거숭이 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맹자는 '불인지심(不忍之心)'이라 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추고 있는 마음이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이를 차마 보지 못하고 직접 자원봉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성금을 보내는 바로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을 천성(天性)이라 부르든, 아니면 신성(神性), 불성(佛性)이라 하든 그 무슨 상관이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앵무새나 임종국 선생은 그 마음이 지극정성으로 작동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그러한 지성(至誠)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한다. 앵무새의 날갯짓에 제석천이 감동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수많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작은 실천이라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법구경〉에 있는 말씀이다.

"물방울이 비록 작을지라도 떨어지고 쌓이면 마침내 큰 그릇을 채우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선(善)이라도 쌓아 올려 마침내 큰 복을 이루느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큰 그릇을 채울 수 있고,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복을 이룰 수 있다. 한 번 반짝했다가 마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성이라는 엔진을 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앵무새의 날갯짓 아닐까?

언제부턴가 내가 사는 아파트에 전기나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면 탄소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앵무새가 심어준 지성의 날갯짓, 희망의 날갯짓이 펄럭이고 있었다. 자연이라는 하늘이 감응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한마음의 도리로 모든걸 커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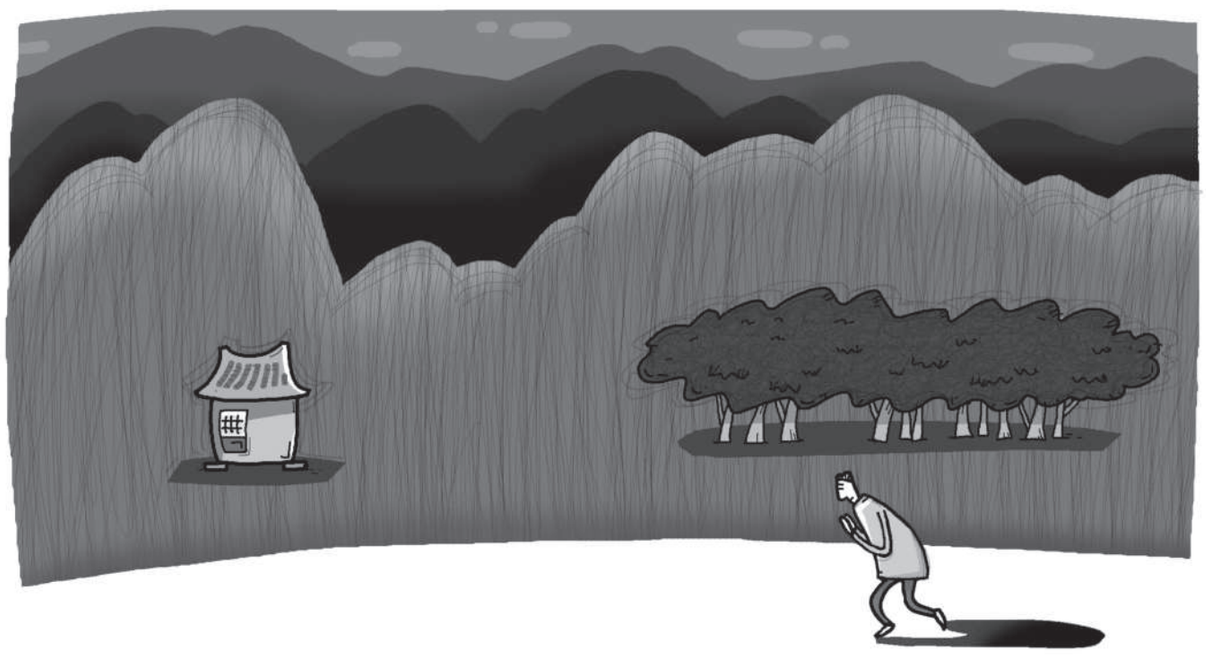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더불어 광명선원 신축 건물 착공식을 한마음 한몸으로 이렇게 같이 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나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흙을 파내도 흙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물도 말없이 흐르고, 봄이 오면 말없이 잎이 푸르르게 나오고 꽃이 피는가 하면 가을이 되어 저절로 낙엽이 져서 떨어지곤 하지요. 이 무상의 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상의 도리다' 한다면 무심의 도리도 알아야 합니다. 무심의 도리, 즉 말하자면 원천의 도리를 인천으로서, 인간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이 찰나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 점을 여러분이 캐치해야만이 물질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세계로 들 수 있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과학으로 첨단을 달린다고 하지만 정신세계로 첨단을 이루는 과학이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과학이니만큼 의학이나 모든 분야가 정신과학으로 첨단을 이룰 수 있어야만 되죠. 그러려면 우리 조그마한 인간의 씨가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굴리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딛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승려들이 여러분이 가져오는 쌀이나 물건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머리 깎고 염불이나 하고 중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깎고 입산할 때는, 사문이 될 때는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그 마음 하나의 씨 없는 씨를 발견하기 위해서죠. 그럼으로써 등불을 켜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컴컴한 사람을 이끌어 가고 밝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생활이 정신과학이며 의학도 정신의학이고, 일체가 정신으로부터 비롯되기에 한마음에 들지 않고는 첨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자기 몸을 불사하는, 자기를 헌 신처럼 버리는 그러한 사문이 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니 되지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응달에 앉았으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뜨거운 데 앉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살을 빌리고 뼈를 빌려서 정자 난자와 같이 혼합이 돼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 모습들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남습니다. 이긴 거죠. 그 많은 생명들 중에서 하나가 이겼습니다. 근데 몸은 받았으나 그 영혼이 거기 결부가 돼야만이 삼신을 받아서 임신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몰라서 내가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또 묘한 것은요, 자기의 영혼이 거기에 혼합이 되는 동시에 자기가 인과로 받은 업식들이 말입니다, 악업 선업이 다, 자기 영혼이 들어가는 데 같이 포함돼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 하나 받아서 자라는데 그 내부에, 세포에, 오장육부에 인과로 인해서 받은 모든 업식들이 한데 합쳐져서 길러집니다. 어린애가 자라면 자라는 대로 같이 자라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생명과 모습과 의식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다 움죽거리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비로소 여러분도 또 움죽거리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생활을 안 해 주면 이 큰 덩어리 하나가 움죽거려지지 않습니다.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하는 소리는, 우리 생명과 근본이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나질 않아서 이 지구도 움죽거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말겠지요.

그러니 우리 이 몸속에 악업 선업이 한데 합쳐 있으면서 여러분을 웃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아주 참 감사하게 하기도 하고, 반면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죽이게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게 하기도 하고 밉게 하기도 하고 증오하게 하기도 하고 화도 나게 합니다. 인과로써 거기에서 자꾸자꾸 수많은 의식들이 나옵니다. 선업을 지은 건 선업을 지은 대로 자기 마음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악업은 또 지은 대로 자기 마음을 통해서 악으로 나오니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 커버하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쁘다 좋다 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다스리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 개 세 개는 아니지만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좋고 나쁜 걸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속에 들어 있는 그 모습들, 그 의식들에서 나오는 마음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대로 따라갑니다. 좋고 나쁜 걸 아는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즉 인솔해 주면 인솔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의식들입니다. 이런 걸 해서 나쁜지 이런 걸 해서 좋은지도 모르고 따라가죠.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 좋고 나쁜 걸 아는 분들이니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고 나쁜 걸 아는 그 마음이 다스리면서 좋은 결과가 즐겁게 나오걸랑 감사하게 거기 맡겨 놓고, 또 악으로 인해서 남을 이익 되지 않게 하는 마음이 나오걸랑 침착하게 거기에 놓고 굴려서 '아,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하고 다시 놓는다면, 좋은 마음을 내서 거기 이익이 되게 놓는다면 유전성도 무너지고 영계성도 무너지고 세균성도 무너지고 모두가, 오간지옥이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솟구쳐 오르면 솟구쳐 오르는 대로 얼굴도 변하고 행과 말도 그냥 악의적으로 쏜살같이 나가게 합니다. 남에게 누가 되게 하고 남에게 듣기 싫게 하고 남이 안되게 마음을 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다면 그게 악이지 다른 게 악이 아닙니다. 꼭 사람을 죽여서만 악이 아닙니다.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을 이익하게 하는 일은 하시고, 악한 마음이 나올 때는 거기다 놓고 한번 굴려서 다시 좋은 마음으로 나오게끔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한마음의 도리로 모든 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한마음이 되어야 공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둘로 보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말 함부로 하고 부드럽지 않게 행을 한다면 모두 악이 돼서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남한테 시주를 많이 하고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도 '한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고서 착을 갖고 원망을 하고 그런다면 그게 공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한마음으로 되질 않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진드기의 발 하나도 발이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메뚜기의 발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습에 끄달린다면 그 고덩어리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

☞ 19면에서 계속

땅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심어져 있는 것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던 겁니다. "내 발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어서 평발로, 한 발로 디뎠느니라." 그래서 평발이거든요. 벌레, 곤충의 발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 그분만이 평발이 아니라 일체의 발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부처님 발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한 발이요 평발이라, 그 평발로 디뎠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행하는 법이 독불장군이 없이 같이 행하기 때문에 사장은 직원으로 인해서 직원은 사장으로 인해서, 회장은 사장으로 인해서 직원들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같이 주고받으며 먹고 사는 조화된 세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쳐서 세상이라고 한 것이고 이 우주와 더불어 같이 말할 때는 대천세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삼천대천세계는 어떤 것인가. 과거에도 그대로 대천이요 현실에도 대천이요 미래에도 대천이니 그 대천은 삼천대천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거와 똑같이는 얘기 안 하지마는 뜻은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푸르른 청산이 있는가 하면 저 물은 끊임없이 흘러 돌고 있고, 끊임없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끊임없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면서 사계절이 돌고 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수없이 나오는 거를 수없이 다스려서 거기 놓는다면,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것은 '거기에서만이 걸리지 않고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더불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생활과학이요, 바로 참선이요 좌선입니다. 우리 공부는 끊임없는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요, 나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처럼 기술이 요요합니까? 남의 나라처럼 마음이 그렇게 깨어서 삽니까? 정신세계로 진출해서 갑니까? 물질을 좇는 데만 여념이 없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분수에 맞춰서 살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세계는 언제 돌아다보겠습니까. 미래의 세계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현실 세계가 과거가 되고, 과거의 세계에서 본다면 정신세계가 미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와 정신세계가 둘이 아니요 또는 과거와 현실이 둘이 아닌 까닭에 우린 마음으로써 항상 그렇게 다스려 가면서 모든 거를 놓는다면, 크면 큰 대로 다스리고 작으면 작은 대로 다스려서 놓는다면 화목이 오지 않을 수 없고 조화를 이루어서 끝 간 데 없이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과학으로 이탈 없이 가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신세계, 무심 도리의 도를 알 수 있게 해야 하죠. 무심 도리를 배워야만 물질세계에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영력(靈力)이 생겨서 과학적인 문제를 첨단으로, 정신세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눈 달리고 귀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머리가 영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하면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보고 들은 게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남들이 자장면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자장면을 만드는 것도 못 봤고 먹어 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먼저 자장면을 연구해서 만들었고 먹어 봤습니다.

내가 미국 등지로 다니면서 들어 보면 그 박사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미국인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말씀하듯 내 생산처가 여기 있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쥘 수도 없지만 내 생산처가 무궁무진하게 내 깊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갑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그 핵심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불어넣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첨단의 무심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말, 언어는 다르지마는 그 뜻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나 가톨릭교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지금 가톨릭교나 기독교의 성당이나 교회가 많이 비었습니다. 난 그걸 눈으로 보고 다녔으니까요. 거기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하고 흑인들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걸로써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텅텅 비어 있는 성당이나 교회가 많아요.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집에 주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만날, 즉 말하자면 빈집 단속하라고 하는 거밖에는 없으니까 안 나가죠. 빈집, 내 마음의 빈집! 여러분도 비었다면, 주인이 없다면 "네 마음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한마음으로 너의 마음속에 같이 밝게 할 수가 없다. 한마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임제스님이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주지 못할 것이고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니라."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되어 털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서 바로 세균성, 영계성, 귀신들, 도깨비 모두가 들랑날랑거려서 녹이 슬고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그 집은 그냥 순간 망가질 수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주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생산처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빈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신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잘되게 해 달라고 바깥으로 관세음보살 찾고 문수보살 찾고 보현보살 찾고, 칠성부처 찾고 지장보살 찾고 약사보살 찾고 아무리 해 봐도 그건 허탕이에요. 공덕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생산처인 줄 알고 일체가 평등공법임을 아시고 칠보활궁공법을 아시고 수레공법을 아신다면, 사무 사유팔수레공법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한마음이 돼서 저 나무 이파리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십이응신으로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법신으로서 모두가 화해서 응해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가 원을 해도 응해 주시고 곤충 하나가 원을 해도 응해 주신다 이거예요.

응해 주신다는 뜻은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 이거지요. 찰나에 한마음으로 들어 주시고 찰나에 한마음이 너 나로 분리돼서 또 한 찰나에 나시고, 이게 달라 하면 이게 달라는 대로 저게 달라 하면 저게 달라는 대로 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부처라고 이름할 게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라. 내가 어떤 것이 되어서 한마음이 돼 줄 때에 나라고 하고, 내가 해 주었다고 하며,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처라는 것은 이름 없는 것이 부처이고 그 이름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법성신이니라.

그러니 여러분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수억겁을 거쳐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온 것이니까 이 몸속에 있는, 내 인과에 따라서 만난 인연들, 중생들을 내 한마음으로 뭉쳐서 모두 인간으로 화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독사의 모습이라면 그 독사의 모습을 면치 못하고 끝 간 데 없이 악독한 그 모습을 가지고서 행해야 되고, 그 모습을 벗을 길이 없어서 오백 생을 지내야만이 또 한 번 인도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곤충이나 짐승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인간으로 살았으면 인간의 습이 있을 거고 곤충으로 살았으면 곤충의 습이 있을 거고 독사로 살았으면 독사의 습이 있을 거고 소로 살았다면 소의 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습을, 모든 걸 놔라 이겁니다. 습에 끄달린다면, 관습에 끄달린다면 절대로 그 고덩어리 속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벌써 그건 내 몸으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국가, 세계,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 손해입니다.

젊은 분들은 임신을 했더라도 한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서 그 아기도 잘 자랄 것이고, 그저 싸움이나 하고 악의적으로 남을 원망이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아기도 따라서 그런 의식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어머니의 교양이 얼마나 태아의 이미지로 부착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속에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여러분의 마음 따라서 움죽거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팥죽 솥이라면 주걱으로 익으라고 젓는 놈은 바로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좋고 나쁜 걸 아는 고 마음, 고놈입니다. 그런데 팥죽 솥에서 불끈불끈 불끈 그냥 수없이 일어나는 그 팥죽 방울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아주 좋아하고, 또 "너 죽일 년이래.", "죽일 놈이래." 이러고, 회사에서도 '너는 벌써 이렇다더라, 윗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러면 그냥 화가 불쑥 나고 기가 이만큼 올라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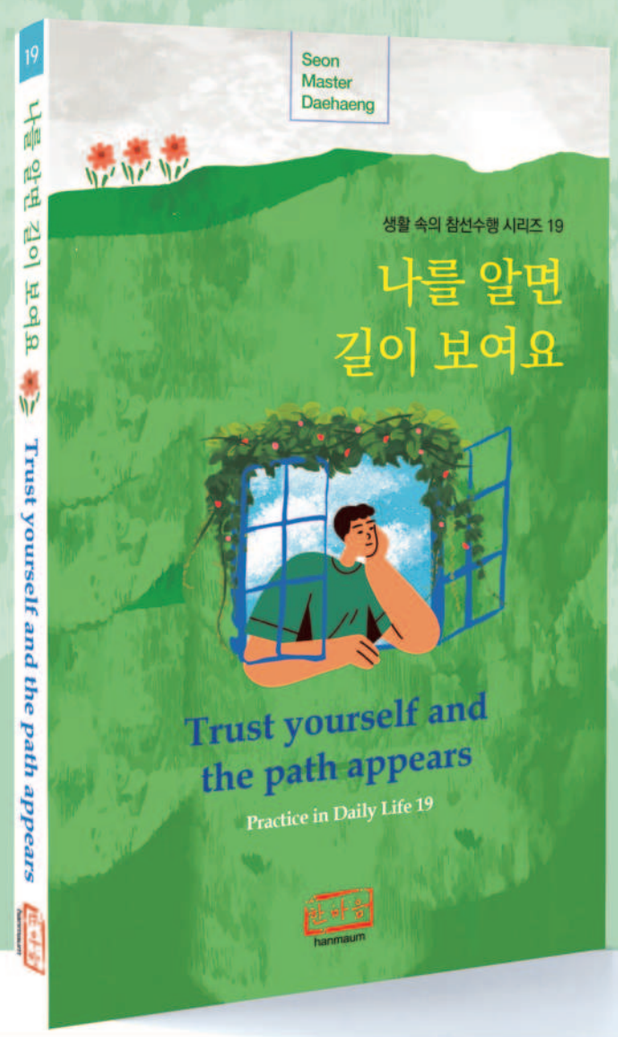
고렇게 만든다고요. 듣는 대로 만들고 보는 대로 만들고 행하는 대로 만들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 일어나듯 불룽불룽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저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일어나고, 지나가면 또 일어나고 지나가면 또 일어나면서 기쁜 마음은 그저 잠시 잠깐이고 삶의 보람 있는 고 순간은 바람결같이 스쳐 갈 뿐이죠. 그러니 24시간 동안에 즐거운 마음이 몇 초나 들까요?

다음 호에 계속

>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수억겁을 거쳐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 인간까지 올라온 것이니, 이 몸속에 있는, 내 인과에 따라서 만난
> 인연들, 중생들을 내 한마음으로 뭉쳐서
> 모두 인간으로 화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7월 1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⑬ 기대 내려놓고 홀로서기의 평안을 찾아서

"내 마음 같지 않아 외롭고 화가 납니다"

남편의 부재로 찾아온 깊은 외로움

상담실을 찾아온 김상담 어르신(가명·70세)은 대졸 학력에 자가를 소유한, 스스로 중산층이라 표현할 만큼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르신이 어디에 간다고 하면 컴퓨터로 길을 찾아줄 만큼 살뜰히 챙겨주던 다정한 동반자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르신은 "한강만큼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할 정도로 깊은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어르신 부부는 생전에 딸과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둘이 살면서 어르신 부부는 "우리 중 한 명만 남게 되면, 남은 한 사람은 자식들이 있는 외국에 가서 살자"는 약속을 나누곤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년 남짓 흐른 뒤, 어르신은 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노년을 보낼 희망을 품고 딸의 집이 있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적처럼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줄 것이라는 깊은 기대를 품은 채였습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

하지만 3개월간 머물려던 외국 생활은 상처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외국에서 성인으로 자라난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어르신의 기준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식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던 어르신과 달리 딸의 가족은 외식을 자주 했는데, 어르신은 이를 '나를 위해 밥을 해주는 것이 귀찮아서 외식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해석하며 서운함을 쌓아갔습니다.

또한, 아들의 결혼식을 맞아 며느리와 딸에게도 어르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엄마는 강하다"라는 딸의 무심한 한마디와 눈치를 봐야 하는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자녀들이 기대했던 대로 위로와 인정을 해주지 않자, 어르신은 자녀에 대한 배신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결국 예정보다 일찍 홀로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추후 아들은 "죄송하다"며 사과해 화가 풀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딸을 향한 서운함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서운함 이면 속에 외로움과 직면

어르신이 딸에게 느끼는 서운함의 이면에는 '한국에서 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려 했으나 그 기대가 무너지자, 혼자 남겨진 현실이 커다란 불안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식들은 착하니까 당연히 내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삶의 기준과 인지적 왜곡이 자녀와의 소통을 더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별 후 자녀 의존하며 상처
다름 인정·정서적 거리 두기 도와
주체적·긍정적 노년기로 재구조화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은 딸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이미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했음을 인정하고 '자녀와의 건강한 정서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어르신 본인의 삶으로 돌려, 지금 살고 있는 장소에서 주체적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계획하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지역 복지관에서 서예 동아리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상담센터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어르신들과의 다양한 관점을 교류하며 일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실버타운 입주를 스스로 구상할 만큼 남은 인생을 재설계할 역량과 강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 어르신은 자녀를 향한 기대의 끈을 조금씩 내려놓고 홀로서기의 자신감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절인연과 '바라지 않는 마음'의 평안

어르신은 외국에 두고 온 자녀들의 태도에 서운해하며, 어릴 적 품 안의 자식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과 설법을 담은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는 '시절인연(時節因緣)'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관계에는 저마다의 때와 인연의 모양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헌신하던 시절의 인연이 지나가면, 이제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독립된 인연의 때가 찾아옵니다. 또한 〈금강경(金剛經)〉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경구가 나옵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베풀었으니 자식도 마땅히 나에게 이래야 한다는 '집착하는 마음(머무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상생과 자유로움이 생겨납니다.

어르신이 호주에서 전해준 선물은 부모로서의 따뜻한 정성이었을 뿐, 자녀에게 보답을 요구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절인연의 이치를 받아들여 자녀를 향한 집착과 기대를 비워낼 때, 억울함과 서운함의 먹구름은 조용히 흩어지게 됩니다.

남편과의 아련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서예 붓을 잡고 봉사를 하며 스스로의 삶을 밝히는 그 당당한 홀로서기의 길이야말로, 어르신의 노년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줄 부처님의 가피일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㊲ SNS 속 의약품 등급

약에도 성적표가 있나요?

"약사님, 10점짜리 감기약 주세요."

"네? 10점 감기약이요? 새로 나온 감기약인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10점짜리요! 제일 좋은 감기약이 있다던데?"

"감기약에 점수가 있나요? 누가 점수를 매겨주던가요?"

"아, 약사님 SNS 안 하시는구나? 별스타그램에서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상상도 못 했다. 약에 점수가 있다니. 호기심에 찾아본 SNS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인플루언서 약사들이 약에 등급을 나누고 점수를 매기는 게시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감기약뿐만 아니라 진통제,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다. S등급부터 C등급까지, 10점부터 5~6점까지, 마치 성적표를 매기듯 줄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참 많다. 몇 번이나 강조했듯, 남들에게 좋은 영양제가 내게 좋은 영양제가 아니며,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간 감기약도 무조건 좋은 약이 아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증상을 개선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안 뒤, 동네 약국에 잘 전달해 추천받은 약이 바로 나에게 딱 맞는 100점짜리 감기약이 된다.

필자는 20년 가까이 약에 대해 공부하고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살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약의 우열을 나눈 적은 없다. 이 성분의 약이 잘 맞는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저 성분이 잘 맞는 증상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약사 가운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 매체에서 약의 표면적인 성분만 보고 단편적인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등급을 나누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사람들에게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분이 단순하거나, 스테로이드·부작용 우려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함량이 높고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제품은 높은 등급으로 나누는 영상들을 자주 본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고 제품 성분표만 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함량이 낮은 제품이나 단일 성분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 위험보다 유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고객에게는 그것이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진통제에 카페인이 함유돼 잠이 안 올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 진통제에 카페인이 포함된 이유는 카페인 자체가 일부 진통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진통제 성분과 카페인을 함께 복용하면 진통 효과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해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진통제의 효능을 도와 같은 용량으로도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뇌혈관이 확장돼 발생하는 편두통의 경우, 확장된 혈관을 정상으로 돌려놓아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고, 약물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도록 돕는다. 즉, 고객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카페인이 함유된 진통제는 피해야 하는 약이 되겠지만, 편두통이 있거나 기존 진통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카페인이 함유된 진통제가 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무작정 등급을 낮게 나눠버린다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성분만으로 점수 매기는 행위 부적절
남들에 좋은 약, 내게도 좋은 약 아냐
등급보다 몸 상태에 맞는 약을 골라야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고객을 생각하는 약사라면 제품의 성분만 보고 그것에 등급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 고객의 상황을 듣고 이해하며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데 더 노력하지 않을까? 물론 상비약을 고르는 것이라면 성분이 다양한 제품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이해는 간다. 상비약은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알 수 없으니 일단 다양한 증상에 대응 가능한 많은 성분의 무난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감기약이든 소화제든 설사약이든, 손님이 약을 달라고 할 때 꼭 이렇게 여쭤본다. "상비약으로 두고 드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지금 불편한 증상이 있으세요?" 그리고 대답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르고 추천해서 선택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고 싶다. 약이나 영양제를 고를 때 어떤 제품이 좋은지, 등급이 높은지 고민하기보다, 내 몸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몸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그것을 약사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야 내 몸 상태에 제일 도움이 되는 치료제와 영양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의약품에는 등급이 없다. 그저 각자에게 맞는 적응증이 있을 뿐이다. 그걸 본인의 증상에 잘 맞춰서 추천받으면 될 일이지, 책임감 없이 내지르는, 조회 수만을 위한 자극적인 SNS 영상에 휘둘려 애먼 의약품에 등급을 나누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

동네 약국을 찾아 약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잘 이야기하고, 추천받은 제품 중에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내 지갑 두께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

우리 복지관은 지금 14. 서울노인복지센터

문화예술로 마음 치유, 주체적인 삶 열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나의 자화상 그리기' 시간에 어르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법령상 '문화복지' 개념이 명확해지기 이전인 2003년부터 문화복지사업을 도입했다. 센터는 어르신을 지혜와 역량을 지닌 '문화생산자이자 선배시민'으로 세우는 데 앞장서 왔다. 탑골미술관과 서울국제노인영화제, 28개의 자조 동아리 활동,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존감과 효능감을 깨닫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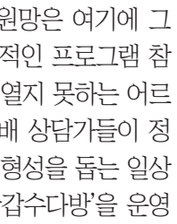
특히 센터는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단절된 어르신들을 다수 발굴했다. 이 과정에서 일회성 물품 지원이나 단기 개입만으로는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기 어려워, 정기적인 관계 형성, 감정 표현의 기회, 사회적 역할 회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현장의 결론을 확인했다.

이에 센터는 진단·치료 중심의 마음건강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서울공동모금회의 신규 기획사업인 '마음온열매'로 새로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종로 생활권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고, 미술·글쓰기·사진 등 문화예술을 통해 감정 표현과 자기 해석을 돕는 '생활권 기반 복지'를 실천했다. 나아가 결과물을 발표·공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었다.

실제로 우울과 불안,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던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총 24회에 걸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회적 회복의 성과가 나타났다. 그 결실은 8월 7일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탑골미술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시 '월상(月相): 다시 차오르다'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지러진 달이 다시 둥글게 차오르듯 마음의 상실감을 극복해 낸 어르신들은 전시 기간 동안 누구보다 본인의 작품을 뿌듯해하며 지인·동료에게 직접 작품을 소개하는 등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센터의 정서 지원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참여에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동년배 상담가들이 정서적 지지와 관계 형성을 돕는 일상관리 프로그램 '반갑수다방'을 운영 중이다. 또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의료, 영양, 건강, 주거 등 맞춤형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시립 복지기관으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주 지역에서도 안정적·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누구나 살아가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부침을 겪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잘 회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사람은 스스로이지만, 그 곁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동반자가 있다면 회복은 한층 더 가까워진다. 치료와 의료 중심의 통제된 관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고 세상과 다시 당당하게 소통하고자 한다면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선희
서울노인복지센터 복지사업2부 부장

대만불교 포교일기 ⑦ 새의 두 날개: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

평등한 역할 분담으로 정토 열어가야

불교계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해묵은 과제가 있다. 바로 사부대중 공동체의 회복과 재가자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다. 이에 대한 해답을 대만 불광산사와 재가 불자들의 세계적 조직인 '국제불광회(BLIA)'의 유기적인 상생 관계에서 찾고자 한다.

창건주 성운 큰스님께서는 생전 불광산(출가자 영역)과 국제불광회(재가자 영역)의 관계 설명 시 늘 두 가지 비유를 드셨다. 하나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의 '두 날개'요, 다른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였다. 두 날개 중 하나만 꺾이거나 수레바퀴의 균형이 깨지면 결코 온전히 전진할 수 없듯, 불교의 도약 역시 출가자와 재가자가 동등한 무게와 책임감으로 결합할 때만 가능하다는 철학이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큰스님께서 제시하신 교단 운영 지침은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명확했다. "전통적인 것은 스님들에게, 현대적인 것은 재가자들에게 속한다. 제도적인 것은 출가인에게, 활동적인 것은 재가인에게 속한다." 이 한 구절의 가르침은 교단 내에서 두 집단이 맺어야 할 건강한 파트너십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법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인 불광산의 스님들은 전통적인 계율을 수호하고 수행과 교육에 전념하며 불교의 중심을 잡는다. 반면 법을 세상에 퍼뜨리는 손과 발이 되는 국제불광회의 재가자들은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들이 가진 현대적 전문성을 발휘해 불교를 대중화한다. 스님들은 법문과 수행으로 재가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고, 의사, 변호사, 교사, 경영자, 예술가인 재가 신도들은 각자의 전문 지식과 사회적 역량으로 세상을 정화하는 주역이 되는 구조다.

출가·재가, 동등한 책임으로 불교 일궈야

수행·교육은 스님, 사회적 활동은 재가자

한국불교 발전 위해 재가자 역량 적극 수용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결코 위아래가 있는 수직적 계급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100%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등한 '역할 분담'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전 세계에 지부를 둔 거대 조직인 국제불광회의 최고 총회장 소임은 창립자인 성운 큰스님 이후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재가 리더들이 이어받아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스님들은 행정과 소유권을 독점해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지도법사로서 재가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법의 중심을 잡아주는 서포터의 역할에 집중한다. 출가인이 스스로를 낮춰 재가자를 교단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세워줄 때, 재가자는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며 전법사로 거듭나게 된다.

부처님 당시에도 빈바사라 왕이나 급고독 장자 같은 위대한 재가 포교사들이 있었기에 교단이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불광산사가 1000여 명의 스님들로 세계적인 사찰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많은 재가불자들의 노력이 함께했다. 한국불교에서도 스님 중심의 사찰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재가자들의 혜안과 전문성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출가인 부족으로 고민 중인 한국불교계에도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하심(下心)하며 법의 날개와 활동의 날개를 나란히 펼칠 때, 불교는 비로소 산속을 벗어나 온 누리를 비추는 진정한 정토의 빛이 될 수 있다. 서울 불광산사 역시 출가와 재가가 계급을 넘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사부대중 공동체의 모범이 되기 위해, 오늘도 수레의 두 바퀴를 힘차게 맞물리며 전법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㉖ 꽃살문에 핀 어떤 꽃

잘 익은 여름은 수박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백일홍 선홍빛으로도 여름이 익어간다.

오래된 절집 마당에는 으레 백일홍이 있다. 작열하는 햇볕을 눈살 하나 찌푸리는 법 없이 고스란히 받아내는 꽃. 사실 그 꽃은 백일 동안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일 동안 피고 지기를 거듭한다. 겨울 양식을 쌓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한 축원이다. 만연사 대웅전 앞에도 커다란 백일홍이 있다. 대웅전 꽃살문엔 여름 내내 꽃물이 든다.

만연사는 무등산에서 솔가한 만연산 자락에, 산이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듯하지만, 고려 말인 1208년(희종 4) 만연 스님이 지었다 한다. 만연 스님—만연산—만연사. 산도 절도 만연 스님의 뱃속에서 나온 것 같다.

전라도 화순 골짜기 절에 경상도 사투리가 꿀벌 날갯짓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린다. 사연인즉, 만연사 주지 행선 스님이 선방 정진하던 수좌 시절 울산에서 맺은 인연들이 기도도 하고 스님도 뵐 겸, 관광버스 빌려서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처럼 만연사를 찾은 것이다. 그 마음씨 좋은 보살님들은 이 할머니를 자기들 반에 끼워주었다. 덕분에 그날 점심 공양 시간은 아주 즐거웠다. 그래서 그날 꽃살문 대신, 꽃살문을 배경으로 하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알게 됐다. 사찰 전각의 문이 왜 꽃문인지를.

손영자 작가



만연사 대웅전.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해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미래를 심는 씨앗, 지역 연합포교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지난 주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경기도 한 사찰의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했다. 내가 있는 강원 산간 지역에는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는 사찰을 찾을 수 없어 평소 인연 있는 스님의 사찰까지 간 것이다. 부모 없이 낯선 절에서 1박 2일을 보내야 해 걱정했지만, 아이는 동생, 언니·오빠들과 어울리며 다도, 108배 등을 씩씩하게 즐기고 돌아왔다. 이번 경험은 그 아이에게 불교와 더 친숙해진 계기가 됐을 것이다. 어린이법회와 여름불교학교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지킬 씨앗을 심는 일이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읍 소재 사찰에서 주지 소임을 살며 어린이법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인근 사찰들과 연합해 여름불교학교를 열고, 어린이법회와 일반법회를 함께 운영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부모와 조부모까지 법회에 참석하는 신행 문화가 만들어졌다. 어린이가 절에 오면 가족도 함께 온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는 포교의 원리다.

이처럼 어린이법회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어린이법회,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하는 사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도심 사찰은 지도법사와 교사, 봉사자 부족에 시달리고, 농어촌 사찰은 어린이 자체가 적다. 재정과 인력의 한계를 개별 사찰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시대가 됐다. 청년법회, 불교대학, 합창단, 철야기도도 등도 마찬가지다. 불자들의 다양한 신행 욕구를 하나

연합포교, 다양한 신행 욕구 위한 해법
협력 통한 사찰 공동 운영, 새 돌파구로
사찰-교구-종단 전법 네트워크 구축돼야

의 사찰이 모두 충족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해법은 '지역 연합포교'에 있다.

최근 종단 포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포교역량 결집대회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며 연합포교에 대해 생각해 봤다. 사찰 각각의 장점을 연결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포교의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역 사찰들이 힘을 모아 어린이·청소년법회와 여름불교학교를 공동 운영하고, 합창단과 불교대학, 철야기도도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군법당과 대학 불교동아리를 지원하고, 지역 불자를 위한 복지시설과 수행 공간까지 함께 마련하는 일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주지를 구하지 못해 비어가는 사찰의 관리와 활용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시대일수록 지역 단위의 협력이 절실하다. 사찰들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할 때 비로소 어린이부터 청년, 군인, 직장인, 노년층까지 생애 전 주기를 함께하는 불교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 교구의 역할도 중요하다. 종단은 연합포교 실현을 위한 종책과 연구를 추진하고 표준화된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도법사와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교구본사는 지역 사찰 간 협력을 조정·지원하는 구심이 돼야 한다. 또 지역별 계층포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와 표준 공양 게송, 법회의식 자료 등의 보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역별 포교역량 결집대회 역시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역 포교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연합포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개별 사찰과 지역, 교구와 종단이 촘촘히 연결되는 전법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 한국불교의 미래 100년도 더욱 든든하게 이어질 것이다.

안전한 '디지털 울타리' 만들기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생성형 AI의 일상화와 플랫폼 알고리즘의 고도화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SNS)는 소통과 정보 탐색, 자기표현의 핵심 공간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용은 학습 집중력 저하와 수면 장애를 넘어 우울, 불안, 사이버 괴롭힘 등 심각한 사회·심리적 폐해를 낳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행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무한 제공하는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은 청소년의 자율적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플랫폼 의존성을 극대화한다. SNS의 편익 뒤에 숨은 미디어 중독과 유해환경은 이제 개인이나 가정의 자율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했다.

이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디지털 연령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전면 금지법을 시행한 호주를 필두로 영국과 뉴질랜드가 16세 미만 제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와 덴마크(15세 미만), 오스트리아(14세 미만) 등도 연령 기준을 세분화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EU) 역시 법적 연령 확인과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시민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합한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규제 방식은 다를지라도, 청소년 보호를 개

청소년의 자율성 약화·미디어 중독 우려
세계 각국, 디지털 연령 제한 정책 펼쳐
디지털 안전, 공공정책 핵심 가치 삼아야

별 이용자 책임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책임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법적 금지와 차단만이 완벽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SNS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 즉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사회 참여가 이뤄지는 공론장이기도 하다. 일방적인 규제는 우회 접속이나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으며, 국경 없는 플랫폼의 특성상 단일 국가의 법제화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중심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이동해야 한다.

핵심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다. AI 알고리즘 디자인은 체류 시간 및 수익 극대화가 아닌,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도록 재설계돼야 한다.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기술 도입, 중독성 유발 기능 개선, 유해 콘텐츠 차단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학교는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화하고, 가정은 통제보다 대화를 통한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이끌어야 한다. 정부, 기업, 학교, 가정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주체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은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다. 과거 산업사회가 교통 및 식품 안전 제도를 통해 시민을 보호했듯, AI시대에는 디지털 안전을 새로운 공공정책의 핵심 가치로 정립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건강한 성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잡는 것이 정책의 본질이다.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그 기술을 청소년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책임 있게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전한 디지털 울타리 안에서 미래세대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社 說

세계유산, 살아있는 가치로 이어가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처음 개최한 세계유산위원회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 각국의 문화·자연유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류 공동의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지를 논의한 이번 회의는,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위상을 세계에 각인한 무대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17건의 세계유산, 2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20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산사를 비롯해 영산재와 연등회, 불조직지심체요절과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등은 한국불교가 인류 문화사에 남긴 소중한 유산이다.

한국불교 문화유산 가치 세계에 알려
시대와 호흡하며 협력으로 미래 계승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개막식에서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승무가 어우러져 기후위기와 분열의 시대를 성찰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대한민국관에서는 영산재와 사찰음식, 수륙재, 산사, 팔만대장경, 선명상 등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세계유산 전문가들은 통도사를 찾아 지금도 수행과 공동체의 전통이 이어지는 산사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문화유산이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 숨 쉬는 수행과 생활의 공간임을 체감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부산 선언'이다. 선언은 기존 세계유산협약의 다섯 가지 전략 목표에 '협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세계유산을 지켜온 사람과 공동체, 그 정신까지 함께 계승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행과 의례, 공동체의 삶이 지금도 이어지는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산사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이유도 천년 넘게 수행공동체가 이어져 온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의 진정한 가치는 등재 자체에 있지 않다. 세계유산이 인류의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보존과 연구는 물론, 오늘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와 체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설, 수행과 의례의 전승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부다.

이번 회의는 우리에게 '세계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함께 읽고, 경험하며, 기억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답은 유산이 담고 있는 철학과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살리고, 공동체와 함께 미래세대로 이어가는 데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사에서는 수행이 이어지고, 영산재와 연등회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뤄지는 문화이며, 사찰음식과 선명상은 현대인과 호흡하며 새로운 공감을 얻고 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와 소통할 때 비로소 유산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자산이 된다.

한국불교가 오랜 세월 이어온 수행과 공동체, 생명 존중과 평화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계승하고 세계와 나누어 갈 때, 우리 문화유산은 비로소 '살아있는 유산'으로 다음 천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7월 2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7월 2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7월 2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지수화풍에서 생명이 생겨 모든 걸 이루고 삽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행선사 법어-

갯벌,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는

최고의 탄소 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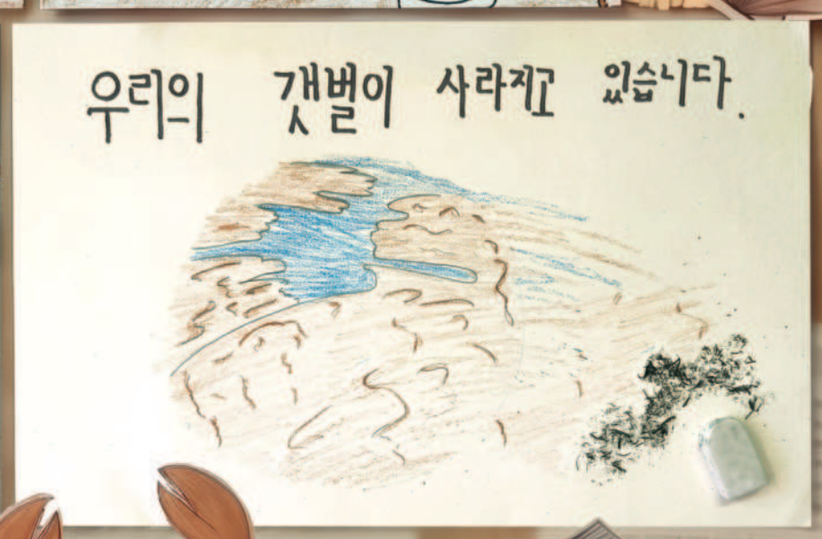












"지구사랑 작은 실천" - EM비누 친환경 세제

네이버 쇼핑몰, 쿠팡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www.smallactions.co.kr 한마음선원EM지구사랑작은실천 @earthloveaction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